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08.21 (+65.47)		826.87 (-0.28)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800 (-0.030)		1384.40 (-1.70)

中 낸드플래시 대규모 투자 ‘공세’ 삼성·SK, 차세대 제품 전환 속도

YMTC, 6.8조 규모 자금조달 추진
삼성전자, 9세대 V낸드 전환 박차
SK하이닉스, 中 현지공장 투자 확대

중국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낸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생산거점 고도화와 차세대 제품 전환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YMTC의 모회사 CCSI는 최근 상하이 쿵광판에 IPO 신청서를 제출하고 330억위안(약 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 자금 가운데 208억위안은 생산라인 개선에, 122억위안은 차세대 낸드와 고속 저장장치 R&D에 투입할 계획이다.

YMTC의 시장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낸드 비트 출하량 기준 YMTC의 점유율은 14%로 집계됐다. 삼성전자(25%)와 SK하이닉스(22%)에 이어 3위다. 키옥시 이를 제치고 처음으로 글로벌 3위권에 진입한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낸드 시장의

성장축이 기업용 SSD(eSSD)로 이동하는 점도 변수다. 2분기 eSSD가 전체 낸드 비트 출하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8%로 전년 동기 26%에서 22%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글로벌 낸드 매출이 전년 대비 37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낸드 생산거점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X2 라인을 중심으로 9세대 V낸드 전환 투자를 추진 중이다. 280만대 제품인 9세대 V낸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 식각 공정용 설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 2공장에 대한 설비투자를 재개했다. 다롄 2공장은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확보한 생산거점이다. 회사는 시장등을 고려해 그동안 투자를 보류해왔지만 최근 식각 등 신규 장비 투입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까지 월 3만장 규모의 낸드 생산능력을 갖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 생산거점은 양사의 전체 낸드 생산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량의 약 40%,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은 약 30%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투자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4654억원, SK하이닉스의 다롄 공장 투자액은 52% 늘어난 440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YMTC의 출하량 증가가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YMTC는 비트출하량 기준 3위까지 올라섰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용 제품 비중이 높아 매출 기준으로는 선두 업체들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첨단 장비와 기술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은 계속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인재 투자를 통해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낸드 시장은 저장용량 수요 증가로 계속 커지고 있고 향후 고대역폭플래시(HBF) 등으로 기술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낸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 업체들이 현지 시장에서 약진하면 중국 내 국내 기업 공장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부가 낸드 투자 등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26일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 모습.

/뉴시스

정부, 7.3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용산공원·서울 그린벨트’ 제외

김윤덕 장관, 오세훈 시장 회동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안 논의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더해 연내 추가 발표할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용산공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가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뒤 “추가로 발표하는 그린벨트 7만3000가구는 경기도에만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0만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에서 공급할 2만7200가구를 제외한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는 연내 공개한다고 밝혔다.

추가 택지로는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가 거론된다. 서울시는 녹지 보전을 이유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고려해 서울 지역은 후보지에서 뺀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26일 서울 중구 달게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2차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용산공원 역시 연내 발표할 신규 택지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협의는 이어간다. 정부는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국가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 개정과 미군기지 반환, 토양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도 단기 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39만3000㎡로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넓다. 서울시는 시설을 이전한 뒤 부지 절반가량에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관련 용역을 마치고 현재 민간사업자 적격성을 검토 중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가깝고 수서역에서는 고속철도와 GTX-A,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업무지구 접근성이 높고 탄천과 공원 등 주변 주거환경도 갖췄다. 다만 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와 비용,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김 장관은 회동 후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 요청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으면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metro

李 대통령, 재계 소통 강화… 반도체 산단·대미 투자 등 테이بل

이재용 회장 등 총수 연달아 회동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고, 이번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對美) 투자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재계와의 소통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태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재용 회장은 이날에 비공개로 면담하고, 곧 정의선 회장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및 피지컬 AI(인공지능)·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기업 총수들과 연달아 만나는 것은 AI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말 발표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의 경우 기업의



투자 금액이 수천조원이 넘어서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손발을 잘 맞추기 위해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며,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 재계의 요구 사항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에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은 삼성과 SK를 상대로 미국 내 메모리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같이 요구하자, 일각에선 대미 전략투자 1호가 반도체 분야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논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투자를 동시에 이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정부 역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상에 임하기 위해 재계와의 소통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재계 총수 회동은 ‘비공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연쇄 회동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확인해주지 않았다. 만남을 공식화할 경우 정부와 기업 양측 모두 핵심대화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성공 개최 토대 마련
- ▲ 국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신상 공개하라… 피해자 이름 안 쓰겠다”

- ▲ 與 “‘물염치 극치’ 이진숙 응징… 제명 징계 절차 다각도로 모색”
- ▲ 정점식 “李, 경찰청장 임명 미루는 건 직무유기… 경찰개혁안 마련 착수”



- ▲ 조국혁신당, 박근혜 국힘 연찬회 참석에 “국민 모독 행위”
- ▲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 “조희대, 사법부 정쟁 한가운데로 몰아” vs “與가 몰아넣어” (사진 뉴시스)

현대차, 100개 이상 신차 투입... 2030년 영업이익율 9% 목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

본업 경쟁력 기반 기업가치 제고
로보틱스 등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
무노스 사장 “피지컬 AI 기업 도약”

현대자동차가 완성차본업 경쟁력과 미래차 기술력 강화를 통해 2030년 영업이익율 목표를 기존 8%에서 9% 이상으로 높였다. 글로벌 판매목표는 555만대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을 늘려 기업의 가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6일 현대차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과 재무계획을 발표했다. 호세 무노스 대표이사(CEO·사장), 박민우 AVP본부장(사장) 겸 포터투닷 대표이사, 김창환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부사장), 이승조 재경본부장



호세 무노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6일 서울 글래드호텔서울에서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CFO·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2030년 글로벌 판매대수 555만대, xEV 판매비중 60% 달성이라는 기존 중장기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환경은 불안정하지만 완성

차 본업 경쟁력이 견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차(HEV) 판매는 36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고, 매출(95조2000억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완성차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네시스의 첫 하이브리드차(HEV) ‘GV80 하이브리드’를 국내와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내년 상반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현대차·제네시스에서 출시할 방침이다.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달성한 현대차의 베스트 셀링카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100개 이상의 신차를 투입하고 생산능력을 127만대 확대하는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가동한다. 하이브리드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앞세워 전동화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00개 이상의 완전·부분변경 및 파생모델을 출시한다. 이 가운데 18개 이상은 기존에 없던 신규 차급의 완전 신차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도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낸다. GV90과 GV80 하이브리드, EREV SUV, 고성능 GV60 마그마 등을 앞세워 전동화와 고성능 라인업을 강화하고, 유럽을 비롯해 인도와 아세안으로 시장을 넓힌다. 2030년에는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35만대 판매가 목표다.

현대차는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

량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 서비스 개선, 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로 이어지는 ‘데이터 플라이휠’을 구축한다. 2028년 첫 SDV 양산차에 자율주행 레벨2+를 적용하고, 이후 레벨4까지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9년에는 100MW급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해 5만장 이상의 GPU를 수용할 계획이다.

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능과 가격, 안전을 동시에 겨냥한다. 자체 개발 셀과 미드니켈 NCM 배터리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열전이 방지 기술을 통해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인다. 수익성 목표도 상향했다. 현대차는 2030년 연결 영업이익률을 9%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매출원가율을 기존 계획보다 3%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호세 무노스 사장은 “현대차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며 “더 많은 모델을 출시하고, 더 많은 파워트레인 선택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신규 차급과 신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봇과 로보택시를 생산·배치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 영·호남 등 최대 10% 인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
전력자급률·균형 성장요소 등 반영

수도권에 쏠린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호남 등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연내 도입된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현재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수요 불균형을 반영해 조정된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영호남의 경우 현재 전기요금보다 최대 10% 인하될 전망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방에서 소비)’와 ‘균형성장’이다. 기존 전기요금 체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51%, 2025년 기준 28만 221GWh)을 차지해 전력수요 분산 효과가 큰 산업용 전력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전국을 송전 혼잡 및 전력 흐름에 따른 4개 광역권과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

로 세분화했다. 단, 제주도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을 감안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지역 요금은 ▲전력자급률(0~8원/kWh) ▲행안부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균형성장 요소(0~6원/kWh) ▲송전비용(0~5원/kWh)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산정 결과 현행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kWh당 181.9원)를 기준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밀집된 남부권(경상·전라)은 kWh당 13~18원이 깎여 최대 10% 수준의 인하 혜택을 받는다. 중부권(강원·충청)은 10~15원, 수도권 북부(인천·경기 북부)는 6~1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반면 전력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는 현행 요금이 유지되거나 0~1원 수준의 미세 조정에 그친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 수렴 의견과 조만간 발표될 행안부 지방우대지수를 합산해 세부안을 확정하고 연내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지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

반도체 추가세수 기금 적립… 靑 “쌈짓돈 아닌 재정 안전판”

호황기 재원 쌓아 세수 변동성 완화
지방성장·메가프로젝트 투자 확대
교육·인재 계층 신설 세대지원 강화
세수 부족 땀 일반회계 결손 보전

청와대는 최근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유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 많이 걷힌 세수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쌈짓돈'이라는 논란이 일자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초과 세수 등을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변동성 완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제안한 기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반도체 사이클로 인해 발생한 특수로 세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의 사례를 들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했을 방향을 보니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다 써버리거나 했다”며 “사이클이 끝나서 세금이 안 들어올 때는 세수 결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작업이 22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인 청와대의 모습.

손이 생겼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려간 2023·2024년의 경우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게 됐으면서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의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만원을 써서 내일 100만원이라는,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주로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제도 성장, 3대 메가프로젝트나 7대 SEED 프로젝트 등 미래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

이다. 이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에 대한 투자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1020세대에 대한 투자로 풀이된다. 특히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재원 마련이) 현재

교육재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 계층을 넣어서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매년 국채를 100조~110조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느냐”며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100조원 이상,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줄어들고 있다면서 “추경에서도 국채를 일부 상환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채무 건전성을 전하고

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일정 수준 국채를 덜 발행하는, 상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내에서 자유롭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산을 통해 편성하고 예산을 통해 쓴다”며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큰 범위로 지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쓰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SK바이오팜, 1.1조 신약 베팅 美서 ‘제2 엑스코프리’ 키운다

오파칼림 전 세계 독점권 확보
2029년 미국 출시 목표 임상 2·3상
RPT 항암제도 FDA 중심 개발

SK바이오팜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던진다. 국산 신약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미국에서 발매해 글로벌 중추신경계(CNS) 시장의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데 이어 ‘항암’ 분야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대한다. 이미 검증된 신약 경쟁력으로 창출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적극 투자해 글로벌 비파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복안이다.

SK바이오팜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 바이오હે브으로부터 차세대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을 총 7억 9500만 달러(한화 약 1조 996억원) 규모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금액에는 선금금, 개발 및 허가 단계별 마일스톤 등이 포함됐다. 선금금은 현금 총 4억 달러로 이 중 3억 5000만 달러를 거래 종결 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달러를 거래 종결 1년 후 지급한다.

마일스톤은 향후 개발 및 허가 진행에 따라 최대 3억 95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일부 마일스톤 및 로열티는 원개발사인 뉴 바이오사이언스에 지급된다.

계약 종결 후 SK바이오팜은 오파칼림 전 세계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오파칼림 외에도 Kv7 디스커

버리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Kv7 계열 화합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2040년대까지 ‘현금 폭포수’

‘오파칼림’은 새로운 기전의 뇌전증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뇌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Kv7 칼륨 채널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성인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3상에 진입해 있다. SK바이오팜은 오는 2029년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한다.

유창호 전략부문장은 “오파칼림 물질특허가 2039년까지이고 특허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하면 2040년대 중반까지 장기 캐시카우로 매출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부처는 무조건 미국”

아울러 이번 오파칼림 도입은 SK바이오팜이 추진해 온 후속 제품 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향후 계획대로 오파칼림 신약 승인에 성공할 경우, SK바이오팜은 단일 제품 회사를 벗어나 다수의 혁신 신약을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국내 유일한 신약개발회사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올해 10월 RPT 항암 신약의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모든 임상과 승인 타겟은 무조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항암 시장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미래AX공학관, 연구 혁신의 시작이 되다

미래 AX 공학관에서 펼쳐질 초격차 연구 혁신.
중앙대학교는 인류의 내일을 바꿀 '메타 밸류(Meta-Value)'를 창출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첨단 교육 플랫폼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2026학년도 상반기 정부재정지원사업 1,927억 수주
 - BK21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5개, ICT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2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증원 승인 학과
[일반대학원 - SI학과/융합보안학과 등 10개 학과, 첨단영상대학원 - 메타버스융합학과]
 - 참외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AX(AI) 전역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생태계**
 -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을 갖춘 '미래 AX 공학관' 건립
 - 사람·학문·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집단 융합 연구 공유 플랫폼' 구축

미래 AX 공학관 착공(2026)

중앙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6.9.8. (화) ~ 9.11.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 02)820-6393

LIG D&A, 수주 둔화·로봇 적자 이어 법적 리스크 ‘겉악재’

6개 방위사업서 뇌물수수·평가조작 ‘1.7조 규모’ 전자전기 사업 핵심쟁점 뇌물공여 인정 시 입찰참가 2년 제한 K-방산 신뢰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 &A)가 수주 둔화와 로봇 신사업 부진에 이어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뇌물수수·평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 진행 중인 대형 방산사업은 물론 향후 국내 신규 수주까지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공무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하고



LIG D&A 판교하우스 외경.

/LIG D&A

현금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용역계약 추천권을 받은 혐의다. A씨에게 평가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IG D&A 임원 B·C씨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이다. 검찰은 특혜가 제공된 6개 사업 중 3개가 전자전기 사업의 선행기술 사업으로, 평가 조작이 후속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사건 처리 결과가 사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LIG D&A는 이와 관련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과

정을 거쳐 큰 점수 차로 선정됐다”는 입장이다.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향후 국내 방산사업 입찰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관계 공무원에게 2억~5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2년간 제한된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공여액이 재판과 행정 절차에서 인정되면 해당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LIG D&A의 2분기 말 수주잔고 24조 5700억원 가운데 내수는 10조5200억원으로 약 43%를 차지한다. 방사청은 오는 2033년까지 약 7535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리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LIG D&A의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세미나에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성공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신규 수주가 주춤한 상황에서 입찰제한 가능성은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LI

GD&A의 수주잔고는 2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약 3% 줄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수한 미국 로봇기업 고스트로보틱스도 상반기 영업손실 25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최기일 상시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수원대 뇌물이 오가고 업체 임원까지 연루된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K방산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업체 차원의 관여 여부와 방사청 내부의 추가 유착 가능성까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화 대전사업장 사고 당시 그룹 총수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냈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신의한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방사청장 역시 조직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SK이노, 7년 만에 SKIET 다시 품는다

합병으로 재무 안정성·수익성 개선 내년 1월 1일 합병 마무리 예정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물적분할해 설립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7년 만에 흡수합병한다. 전기차 시장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공급 확대·가격 경쟁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체 자금조달 여력까지 줄어든 SKIET를 모회사에 편입해 재무 부담을 낮추고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직·기능 통합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연간 약 600억원 개선해 합병 후 2~3년 안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SK이노베이션은 26일 ‘2026년 SK이노베이션 합병설명회’를 개최하고 SKIET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존속회사로 남고 SKIET가 소멸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오는 11월 24일 합병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SKIET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을 생산

하는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재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분리막 사업을 물적분할했으며 SKIET는 202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계획을 조정하면서 분리막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와 가격 경쟁 심화도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SKIET의 올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은 약 20%에 머물렀고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자체 차입 여력도 축소됐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이 늦어질수록 SKIET의 차입금 상환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재무 위험이 계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합병 이후 SKIET는 SK이노베이션 내 분리막 사업부로 편입된다. 투자와 생산, 판매 등 주요 의사결정을 일원화하고 중복 조직과 관리 기능을 통합한다. SK이노베이션의 연구개발(R&D) 역량과 SKIET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고객 중심으로 생산·마케팅 체계도 효율화한다.

전기차용에 집중된 분리막 수요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로 확대한다. SK이노의 ESS 사업과 연계해 관련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감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생산거점인 중국 공장 매각과 증평 공장 가동 중단을 거쳐 약 2조원이 투입된 폴란드 공장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직·기능 통합과 금융비용 절감으로 연간 약 600억원의 EBITDA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 연구개발과 추가적인 원가 절감까지 더해 영업이익은 2029년께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시장 회복과 ESS용 분리막 판매 확대가 이어지면 흑자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합병비용은 SKIET 보통주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0주다. 합병신주는 기존 SK이노베이션 발행주식의 약 2.6% 규모로 내년 1월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공급 안정성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

지난해 출생아 수 18년 만에 최대폭 늘어

데이터처 ‘지난해 출생 통계’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성 1명이 생애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년 연속으로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대비 6.7%(1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증가폭은 2007년의 10.0% 이래로 최대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43만8400명)부터 8년 연속 감소해 2023년 23만 명까지 주저앉았다가 2024년(23만8300명) 반등에 성공해 25만 명대를 회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로 결혼이 크게 늘면서 시차를 두고 출생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각종 정부 지원책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증가 요인에 대해 “2023년 5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혼인이 회복된 영향과, 30대 여성인구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0.75명)보다 0.05명 늘었다. 지난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년째 증가 흐름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출산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을 보면 혼인 중의 출생아 비중은 94.5%,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5.5%를 차지했다.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5.5%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양주~강남 ‘30분’ GTX-C, 집값 견인할까

경기 양주시 덕정역~수원역 이어 교통망 개선으로 미분양 해소 기대

공사비 문제로 착공식 이후 첫 삽을 뜨지 못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에 재시동이 걸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수요자가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GTX-C가 경기 북부 주거의 선택지를 넓히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86.6km를 잇는 노선이다. 급등한 공사비가 기존 협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공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공사비를 증액한 변경안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정부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약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양주의 정부 등 경기 북부가 강남 30분대 통근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먼저 개통한 GTX-A의 경우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시간을 기존 70분 이상에서 약 19분으로 단축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축 아파트 선호 등이 맞물리며 동탄역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

가 거래가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GTX-C 본공사가 현실화하면 양주시 덕정역과 의정부역 등 정차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부동산이 살아날지 주목한다.

종점이 들어서는 양주는 미분양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양주의 미분양 주택은 2407가구, 준공 후 미분양은 374가구에 달한다. 전체 미분양은 평택 3076가구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양주를 8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채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나 해소 저조, 추가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대상이다.

교통망 개선이 실제 주택 수요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교통 외 여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8·13 대책 후속 조치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증가분을 총량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면서 집단대출 여건은 일부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타려는 수요자도 입주 때까지 집이 팔릴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다. 역 접근성을 높이는 연계교통과 교육·상업·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용산공원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 1·29 공급대책 ‘빨간불’

관련 법안 처리, 정기국회로 연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방안 검토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30여건만 처리

정부·여당이 서울 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야 간 이견 차로 이재명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은 상정이 연기돼 정기국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여야 원내수석 등은 이날까지 비공개 회동 등을 이어왔지만, 용산공원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로 넘어가 여야의 쟁점 사안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비쟁점법안 30여건만 처리됐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전 주한미군 주둔시설)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공급 물량을 1100호에서 2500호로 늘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진숙 의원 제명 동참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시

못한 점은 아쉽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은 모처에서 만나 화동했으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근 합의하지 못하고 서울시가 역제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선 광주 5·18 민주화운동 편제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있었다. 국회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159표, 찬성 157표·반대 1표·무효 1표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

사를 주최해 여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해당 행사에선 발표자였던 이영훈 교수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동식 호남대 안포럼 공동대표는 “이 체제에서 오염과 타락을 하게 된 그 주요 원인이 5·18”이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이진숙 의원의 5·18 편제 문제는 같은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이진숙 의원의 행사 주최를 두고 “민의를 전당인 국회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자,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의미를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국회 운영위는 이 의원에게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전달(25일) 의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의

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는 의미로 피켓시위를 실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 두발언에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당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인 의사 표시로 강제력이 없다. 이진숙 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추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되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출범 후 28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상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제명이 확정된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김민석 대표가 광주전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비유한 것을 두고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장동혁, 당협위원장 직선제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
“중진 희생론, 지금 논의할 때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협위원장 직선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른바 ‘중진 희생론’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지금 당장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수 진영 연대와 관련 해선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심을 얻은 당협위원장들이 위원장직을 이어가는 건 자라히 당연하고 그것이 당헌·당규의 취지”라며 “그렇기에 당헌·당규에 따라 당협위원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일반 당원이나 책임당원에게 묻겠다는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방향성이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장 대표의 발언은 당협위원장을 당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뜻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 투표 등을 통해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전원 재선 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라 별도의 투표 없이 기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당협위원장이 부재한 ‘사고 당협’을 중심으로 새 위원장을 선임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보고 당원 투표 등을 거쳐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했고, 당 의원총회

에서도 반대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결국 24일 결정을 내리기로 했던 당 지도부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지금 반대 의견이 집중되는 것은 여당과 이재명 정권에 치열히 싸워야 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협위원장 교체) 시기와 속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해서 시기와 속도,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당협위원장 직선제 선출 의지를 꺾지 않았다.

장 대표는 “중진 희생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고민해야 할 내용 중 하나”라면서도 “총선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정부·여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李 “3대 메가투자자 초격차 산업 다극화”

전국 시·도지사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서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 말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완주~진안·무주 도로사업 예타 통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북 완주·진안·무주)이 26일 국토 26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와 국토 37호선 무주 설천 삼곡~두길 사업이 제6차 국토·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가 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전국 142개 대상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전북에서는 총

5개 사업이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2개가 안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 지역 사업이다.

전북지역 예타 통과 사업은 ▲남원 인월~산내 국지도 60호선(8km·924억원) ▲무주 설천 삼곡~두길 국토 37호선(8km·1026억원)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토 26호선(2km·1037억원) ▲전주 도도~김제 공덕 국토 21호선(10km·2229억원) ▲김제 공덕~군산 대야 국토 21호선(10km·2300억원) 등이다.

/박태홍 기자

‘지선 참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정리한 후보 자작극도 타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자신이 제안한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제안이 동력을 잃자 26일 자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도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신당이 되기 위해 보다 절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 총 185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단 1명을 배출해내는 데 그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점도 개혁신당에 큰 타격이었다. /박태홍 기자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120th
1906-2026
삼육대학교 120주년

www.syu.ac.kr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시대는 변해도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906년 개교 이래 120년의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삼육대학교는 사람을 깨우고 세상을 밝혀왔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원서접수일 : 2026.9.7.(월) 10:00 ~ 9.11.(금) 18:00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입학처 문의 : 02-3399-3377~9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sy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상반기 세전이익 11.2% ↑ 5조 목표 ‘신계약 CSM·글로벌’ 변수

(2030년)

상반기 연결 세전이익 1조8508억
보험손익 10.9% ↑·투자손익 22% ↑
신계약 CSM 등 수익성 개선 과제

삼성화재가 ‘2030년 세전이익 5조원’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올 첫해에 이익은 늘렸지만 미래 보험이익 재원인 신계약 보험계약파진(CSM)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에서 목표까지 동일한 성장률을 적용하면 올해 3조1293억원, 남은 반기에는 1조2785억원이 필요해 이익과 신규 계약의 양·질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올 상반기 연결 세전이익은 1조850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1조1145억원으로 10.9%, 투자손익은 7880억원으로 22.0% 각각 늘었다.

◆ 연 12.4% 성장해야… 하반기 1.2조 필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올해 경영계획에서 2030년 세전이익 5조원 이상을 제시했다. 장기보험 수익성 강화와 자동차보험의 지속 가능한 흑자, 일반·글로벌 사업 확대가 실행과제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연결 세전이익은 2조7833억원이었다. 여기서 2030년 5조원까지 동일한 성장률을 적용하면 연평균 12.4%씩 높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경로는 3조1293억원이다. 남은 반기에 필요한 1조2785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많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보험손익 감소를 43.5% 늘어난 투자손익으로 만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두 손익이 함께 증가했



삼성화재 사옥.

/삼성화재

다. 다만 삼성화재는 주식 평가이익과 일반보험 대형사고 감소를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하나증권도 2분기 장기보험손익에 장래 손실에 대비했던 비용을 되돌리는 손실부담계약비용 환입 약 544억원이 포함됐고, 캐노피우스 지분법이익 중 약 380억원은 일회성이라고 분석했다.

◆ 기존 계약 효율 개선… 새 CSM 12.6% 감소

장기보험에서는 현재와 미래 이익의 흐름이 엇갈렸다. 상반기 장기보험손익은 8804억원으로 5.6% 증가했다. 25회차와 37회차 계약유지율은 각각 6.0%포인트(p), 6.3%p 개선됐고 신계약 CSM 배수도 12.8배에서 13.9배로 상승했다. 수익성 높은 계약에 집중한 효과다.

반면 월평균 보장성 신계약 보험료는 149억원으로 19.5%,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12.6% 감소했다. 전체 CSM은 지난해 말보다 4271억원 증가한 14조5947억원이어서 당장 미래 이익 기반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신규 CSM 둔화가 길어지면 향후 보험이익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신계약 CSM 배수의 추가 하락을 막을 경우 올해 신계약 CSM이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실적 2조8984억원과 유사하다. 이 전망대로라면 남은 반기에 1조657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상반기보다 33.4%, 전년 동기보다 약 12.2% 많다. 삼성화재는 전속채널 신인 설계사 확충으로 하반기 신계약 CSM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보험은 2분기 296억원의 보험이익을 냈지만 상반기 누적 보험이익은 2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7% 줄었다. 일반보험손익은 1875억원으로 75.6% 증가했으나 저수익의 부분 관리와 함께 대형사고 감소 효과가 반영됐다.

글로벌 사업도 엇갈렸다. 영국 로이즈보험사 캐노피우스의 지분법이익은 1685억원으로 247.6% 급증했다. 해외법인은 수익이 43.3% 늘어난 1420억원을 기록했지만 손익은 약 40억원으로 81.5% 급감했다. 지분투자 성과는 가시화됐지만 직접 영업하는 해외법인의 수익 안정화는 과제로 남았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금융위, PF 사업장 ‘LH 매입임대’ 전환 속도

국토부·LH 등 관계기관 협업 논의
자금조달 지연 사업장 등 매입 확대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국토부·LH·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향후 사업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축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주택 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시범 추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

에 제공하고,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참여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총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에 대해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상 사업장과 매입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이 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방식도 기존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PF 사업장도 LH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확대되고, 2028년에는 50%가 적용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매입임대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사업자의 매각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든 준공 이후 매수자와 매각가격을 미리 확정할 수 있어 미분양 위험을 낮추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정형 주담대 금리 4.76%… 신규 비중 급감

시장금리 상승에 변동형 비중 증가

시장금리 상승 속에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보대출 금리가 10개월 연속 오른 연 4.76%를 기록했다. 신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31.9%로 떨어져 1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4%로 전월보다 0.14%포인트(p) 상승했다.

◆ 고정형 주담대 0.23%p ↑… 변동형 보다 상승폭 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대대출 금리는 4.48%로 0.12%p 올랐다. 금리 조건별로는 고정형이 4.53%에서 4.76%로 0.23%p, 변동형이 4.27%에서 4.35%로 0.08%p 각각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7월 고정형 금리는 변동형보다 0.41%p 높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97%로 한 달 사이 0.25%p 뛰었다. 보증대출은 4.26%로 0.15%p, 전세자금대출은 4.19%로 0.12%p 각각 상승했다.

관련 시장·수신금리도 대체로 올랐다. 신규취급액 코픽스의 7월 대상월 금리는 3.18%로 전월보다 0.13%p 상승했고,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코픽스는 2.98%로 0.08%p 올랐다. 은행재 5년물 금리는 4.39%로 0.07%p 상승했다.

고정형 금리의 상대적인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취급 비중도 낮아졌다. 전체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로 전월보다

1.7%p 떨어졌다. 2022년 5월 20.7% 이후 가장 낮고, 지난해 8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신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한 달 새 37.7%에서 31.9%로 5.8%p 급락했다. 2014년 2월 31.8% 이후 최저치로,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낮아졌다.

◆ 중기대출 금리 하락에 은행 평균은 내리

가계대출과 달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4.27%로 전월보다 0.04%p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가 4.20%로 0.07%p 내리면서 평균을 끌어내렸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단기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4.18%로 0.01%p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22%로 0.16%p 하락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시장금리 오름세를 반영해 3.21%로 0.13%p 상승했다. 지난 4월 2.92%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16%로 0.14%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48%로 0.12%p 올랐다.

대출금리는 내리고 수신금리는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06%p로 0.17%p 축소됐다. 지난 2월 1.43%p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금리가 2.15%로 0.08%p, 총대출금리가 4.37%로 0.03%p 각각 상승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2%p로 0.05%p 줄었다.

비은행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21%로 0.47%p 올랐다. 일반대출 금리는 10.51%로 한 달 사이 1.03%p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신한금융-Visa, 미래 금융서비스 개발 ‘맞손’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등 협력

신한금융그룹이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Visa)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금융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비자그룹과 디지털자산·AI 기반 결제 및 기업간거래(B2B) 등 미래 금융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양사 주요 경영진이 논의한 미래금융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에 협력한다. 신한금융은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활용해 발행·송금·상환 등 핵심 기능을 검증하고 국



신한금융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비자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과 크리스 뉴커크 비자 사장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사업모델을 공동 설계할 계획이다. 또 AI 기반 미래 결제모델 구현과 B2B·B2C 결제사업 확대를 위한 공동 실증 및 차세대 금융서비스 개발에도 협력한다.

/나유리 기자

한화 건설부문, ‘에너지 관리’ 국책과제 참여

‘건축물 자율운영 기술’ 기반 마련 예정

한화 건설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BIM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건물에너지 관리 시뮬레이터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에 참여해 AI를 활용한 건물에너지 관리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화 건설부문을 비롯해 E8,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1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다. 총 연구개발비는 약 153억원 규모다.

한화 건설부문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건물 운영·유지관리 검증을 담당하며, 시간대별 에너지 예측 정확도 95% 이상, 피크전력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한다. 나아가 AI가 설비 상태와 에너지 사용패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건축물 자율운영 기술’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LG, 서로의 ‘텃밭’ 넘본다 히트펌프·TV 아트 경쟁 본격화

삼성, 광주 EHS 생산라인 내달 양산
연 10만대 규모 국내 히트펌프 공략
LG, 메트로폴리탄 명화 100점 추가
게임·영화까지 TV 아트 영역 넓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존 주력 가전을 넘어 양사가 각각 선점해온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경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은 LG가 먼저 기반을 다진 국내 가정용 히트펌프 사업을 강화하고, LG는 삼성이 앞서 카운 TV 예술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 2132㎡ 규모의 EHS(공기열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9월 말 양산을 시작하며 연간 1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 히트펌프 사업을 해왔지만 국내 생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제품을 공급한 데 이어 하반기 1418가구 규모의 2차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 10만대는 판매 목표가 아니라 생산 가능한 규모”라며 “정부 지원사업에 맞춰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어온 히트펌프 사업을 국내에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2011년부터 국내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사업을 해왔다. 올해 제주 보급사업에서는 1차 물량 1042가구가운데 450가구의 설치를 맡았다. 정부 사업에 공급하는 해당 제품도 연내 국내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히트펌프 제품은 이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정부도 난방 전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



삼성전자가 정부의 난방 전기화 보급사업에 맞춰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시작으로 상업시설과 농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TV 예술 콘텐츠는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사업을 확대해온 분야다. 삼성전자는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 ‘삼정 아트 스토어’를 전 세계 117개국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아트 바젤 등과 협력해 800명 이상 작가의 작품 5000점 이상을 제공한다. 미술 감상에 특화된 ‘더 프레임’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아트 스토어는 올해 일반 프리미엄 TV까지 확대했다. 별도의 아트 전용 TV가 아니라더라도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LG전자도 기존 아트 서비스 ‘LG 갤러리 플러스’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손잡고 반고흐와 모네, 르누아르 등의 명화 100여 점을 추가했다. 내셔널갤러리 런던과 국

립현대미술관, 사치아트 등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명화와 현대미술, 게임 일러스트, 영화 포스터 등을 합쳐 5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명화와 제휴 미술관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트 서비스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삼성은 세계 주요 미술관의 명화를 중심으로 작품과 적용 TV를 확대하고 있다. LG는 미술뿐 아니라 게임과 영화 등으로 콘텐츠 종류를 넓히는 전략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DA(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히트펌프 제품의 국내 생산 체제 구축으로 난방 전기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히트펌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하 LG전자 MS사업본부 웹OS 플랫폼사업센터장은 “고객이 LG TV를 디지털 액자로 활용해 미술과 게임 등 좋아하는 콘텐츠를 감상하고, 나만의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아트 콘텐츠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자율주행 승부처, 데이터·AI로 이동

현대차, 차량데이터 선별 AI학습
엔비디아, 옴니버스·코스모스 AI훈련
퀄컴, ADAS·콕핏 통합 ‘플렉스 SoC’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단순한 주행 성능을 넘어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AI) 학습, 가상환경 검증, 차량 적용까지 개발 전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가 실제 차량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지속 개선하는 가운데 반도체·플랫폼 업체들은 시뮬레이션과 소프트웨어중심차(SDV) 기술을 앞세워 자율주행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 E 2026)’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플라이월’ 전략을 제시했다. 차량 데이터를 선별해 모델을 학습·검증한 뒤 다시 차량에 배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경민 현대차 자율주행개발센터 상무는 “차량의 경쟁력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와 AI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연간 700만대 이상의 차량을 190개 이상 지역에 판매하는 규모를 데이터 확보의 강점으로 꼽았다.

다만 실제 자율주행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전체의 1% 이하라며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큐레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AI 학습·검증 방식을 소개했다. 실제 도로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상환경에서 구현해 AI 모델을 반복 학습·검증하는 방식이다.

퀄컴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디지털 콕핏 등을 하나의 칩에서 지원하는 ‘플렉스(Flex) SoC’를 소개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여러 기능을 구현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퀄컴에 따르면 현재 5억대가 넘는 차량에 자사 제품이 적용됐으며 디지털 콕핏 제품은 9000만대 이상 상용화됐다. 차량 내 AI는 온디바이스 방식과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강조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삼성, USB4 포터블 SSD ‘P9·P7’ 공개

P9, 세계 첫 8TB·초당 4000MB 지원
P7, 스마트폰·게임기 등 호환성 강화

삼성전자가 차세대 USB4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포터블 SSD 신제품을 선보인다. 초고해상도 영상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대용량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성능·고용량 제품으로 포터블 스토리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포터블 SSD ‘P9’와 ‘P7’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6’에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제품은 초고해상도 영상과 AI 콘텐츠, 대용량 게임 등 데이터 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을 겨냥했다. 전문가용 플래그십 모델인 P9과 다양한 기기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P7 등 2종으로 구성됐다.

P9은 USB4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최대 연속 읽기 속도 초당 4000MB, 연속 쓰기 속도 초당 3800MB를 지원한다. 이전

세대 T시리즈 대비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약 2배 빨라졌다. T9 4TB 제품은 USB 3.2 Gen 2x2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최대 연속 읽기·쓰기 속도 각각 초당 2000MB를 지원한다.

특히 P9은 세계 최초로 초당 4000MB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8TB USB4 포터블 SSD로 구현됐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 2026 혁신상’도 수상했다.

P9은 높은 연속 쓰기 성능을 바탕으로 전문 촬영 현장에서 12K 다이렉트 레코딩(Direct Recording)을 지원한다. 대용량 RAW 사진과 초고해상도 영상 등을 끊김 없이 저장할 수 있어 전문 크리에이터의 촬영·편집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P7 역시 USB4 기술을 적용했다. 데스크톱과 노트북뿐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콘솔, 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된다. 2m 높이 낙하 충격 테스트와 충격·진동 내구성 검증도 거쳐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차현정 기자

LG, 세계 첫 ‘네이티브 1000Hz’

FHD 화질 유지한 초고주사율 구현
AI 화질·사운드로 게이밍 몰입감 강화
149만원 울트라기어로 프리미엄 공략

LG전자가 초고주사율과 고해상도를 동시에 구현한 게이밍 모니터를 앞세워 프리미엄 게이밍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기존 초고주사율 제품에서 감수해야 했던 해상도 저하 없이 FHD 화질에서 1000Hz 주사율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FHD(1920×1080) 해상도에서 1000Hz 초고주사율을 기본 지원하는 네이티브(Native) 1000Hz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 LG 울트라기어 신제품(모델명 25G590B)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사율은 1초에 화면이 갱신되는 횟수로, 1000Hz는 1초에 최대 1000장의 화면을 표시한다는 의미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을 더욱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 신제품은 빠른 화면 전환과 선명한 화질을 동시에 원하는 게이머를 겨냥했다. 기존 듀얼 모드 1000Hz 모니터는 최대 주사율을 사용하면 화면 크기나 해상도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25G590B는 FHD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100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로 1,000Hz 초고주사율과 FHD 해상도를 동시에 구현한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모델명: 25G590B). /LG전자

특히 빠른 화면 전환이 중요한 1인칭 슈팅(FPS) 게임에서 적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캐릭터와 배경, 사물의 세부 요소까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정밀한 조준과 빠른 타깃 인식이 필요한 게임에서 활용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기능도 탑재했다. ‘AI 맞춤 화질’은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인식해 화질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AI 사운드’는 헤드폰 등을 사용할 때 발소리 방향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게이머의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공간 활용성도 개선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 스탠드 베이스 크기를 기존 모델(25G550B) 대비 최대 49% 줄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인터내셔널

전자선하증권으로 무역 디지털 전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종이 중심의 무역 서류를 전자화해 물류·금융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플로우, ZIM, 하나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태웅로직스와 ‘전자선하증권(e-B/L)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e-B/L 발행·거래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협력한다.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과 인도를 증명하는 무역 서류로, 종이 문서는 전달에 통상 5~10일이 걸린다. e-B/L을 적용하면 이를 수시간 이내로 줄이고 국제 특송·문서 처리 비용도 최대 80%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부산에서 미국 찰스턴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거래에 ZIM의 e-B/L 플랫폼을 적용해 발행부터 화물 인도까지 전 과정을 실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범위를 수출입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컨소시엄을 총괄하고 포스코플로우와 ZIM, KTNET, 하나은행, 태웅로직스가 각각 운송·플랫폼·금융·물류 분야를 지원한다. /유혜은 기자 chakchak@

LG화학, AI 반도체 소재로 대만 공략

세미콘 타이완 2026서 첨단소재 공개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능을 뒷받침하는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 소재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 2026(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과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과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소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다. 반도체 제조사와 후공정 전문기업(OSAT), 기판·

패키징 기업 등이 참가해 기술 교류와 사업 협력을 진행한다.

LG화학은 난강전시센터 2관 4층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HPC) 시장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를 소개한다. 전시 공간은 첨단 패키징 소재를 다루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존(Advanced Package Zone)’과 전력반도체 소재를 소개하는 ‘파워 패키지 존(Power Package Zone)’으로 구성한다. 어드밴스드 패키지 존에서는 동박적층판(CCL)과 글래스 코어 솔루션, 발드업 필름, 필름형 솔더레지스트(DFSR)를 전시한다. 감광성 절연 소재(PID)와 다이 부착 필름(DAF), 본딩·디본딩 솔루션, 미세공정용 박리액 등 첨단 패키징 공정에 적용되는 소재도 함께 소개한다.

/원관희 기자 wkh@

한류 타고 뜬 ‘K-굿즈’… 中企 140여곳 북중미 수출길 연다

〈뷰티·푸드 등〉

美 ‘ASD Market Week’

중기중앙회, ‘K-Goods Fair’ 개막
소비재 관련 미주 시장 동향 파악
현지 바이어, 한국 제품 기대 높아

K-뷰티, K-푸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140여개 한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SD Market Week 2026’에서 ‘K-Goods Fair’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K-Goods Fair에 설치한 150여개 부스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들 비롯해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휴앤쇼핑 협력사들과 함께 서울, 경기, 경북, 충북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참여했다.

‘ASD Market Week’는 1961년 시작해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북미 지역의 대표 소비재 B2B 전시회로, 매년 상·하반기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특히 소비재와 관련해 미주 시장의 모든 분야에 대한 동향과 최신 트렌드 파악이 가능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SD Market Week 2026’에서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이 ‘K-Goods Fair’ 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시회로 손꼽힌다. 이번 전시회는 25~27일 사흘간 펼쳐진다.

전시회에 참석한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모습이다.

미국 유통체인 빌드 디파트먼트의 디렉터인 앤젤은 “드라마, K-Pop 등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을 찾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대규모 한국관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좋았으며 사흘의 전시기

간 동안 지켜보며 여러 제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에서 온 뷰티프로의바이어미겔은 “시존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 꾸준히 이 전시회를 찾고 있다”며 “평소 눈여겨보던 한국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기대 이상으로 훨씬 매력적이다. 디자인과 품질이 우수한 K-뷰티 제품에 관심이 있고 차별화된 기능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에서도 해볼 만한 것 같아 샘플을 요청

했다”고 말했다.

한국관에 재참가한 서현영 스킨앰플러스 대표는 “지난 3월 처음 참가한 ASD 전시회에서 중남미 바이어와 250만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두번째 참가를 계기로 월마트, 코스트코 등 북미 대형 유통망과도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글로벌 홍보대사로 이번 행사

에 동행한 박영선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 기업들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ASD Market Week가 올해 주목하는 나라는 KOREA”라며 “한류와 함께하는 한국 제품들은 특히 화장품을 비롯해 악세사리 등 아이디어 상품들의 인기가 많다. K-뷰티는 현장체험관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한국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북적북적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K-goods에 쏠려 있다는 데 어께가 으쓱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K-뷰티와 푸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ASD 전시회 주최 측에서 한국 기업의 참가를 요청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이제 필수로, 이번 ‘K-Goods Fair’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북중미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실질적인 수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권형택 기보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의행장(왼쪽에서 세번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우리銀, 미래 전략산업 육성 ‘맞손’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기업에 총 9750억 규모 협약보증 공급 예정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지난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케이·스파크(K-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총 97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대상기업에 ▲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5%p ↓, 3년간)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1%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생산적 금융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영토 확장

제네시스 ‘GV90’에 2종 공급
차량 중앙에 움직이는 화면 적용
페라리 ‘루체’에도 단독 공급

삼성디스플레이가 제네시스의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공급한다. 마니와 페라리에 이어 제네시스까지 프리미엄 완성차 고객을 넓히면서 차량용 OLED 시장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

26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회사는 GV90에 24.6형과 13.2형 OLED 2종을 공급하며 이달부터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특히 차량 중앙에는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24.6형 OLED가 적용됐다.

주행 중에는 23.6형 화면으로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등을 보여주지만 정차 후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90mm 위로 올라간다. 화면 면적도 약 1.7배로 넓어진다. 얇고 가벼운 OLED의 특성을 활용해 차량 내부에서 디스플레이 자체가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에서 공들이는 지점은 이 같은 디자인 차별화



삼성디스플레이의 24.6형 OLED가 탑재된 GV90 네오론의 팝업형 센터 OLED 시네마틱 디스플레이. /현대차그룹

다. 스마트폰처럼 정해진 직사각형 화면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성차 업체의 실내 디자인에 맞춰 제품 형태를 바꾸는 방식이다.

공급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마니 전기차에는 업계 최초로 대형 원형 OLED를 공급했다. 지난 5월 공개된 페라리의 전기차 ‘루체’에는 OLED 4종을 단독 공급했다. 특히 운전석 계기판에는 두 개의 OLED 화면 사이에 실제 바늘을 배치해 디지털 화면과 기존 기계식 계기판을 결합했다.

이번 GV90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화면 자체가 움직이는 구조를 적용했다. 마니의 원형 화면과 페라리의 겹치는 계기판에 이어 팝업형 디스플레이까지 확보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차량용 OLED 시장은 아직 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고급차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차량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약 305만 대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70%를 웃돈 것으로 추정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샘-한화손보, 고객 가구수리 부담 완화

‘한샘AS케어+’ 도입 맞손

한샘이 고객의 가구 수리 부담을 덜고 품질 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한화손보와 손을 잡았다.

한샘은 한화손보와 가구업계 최초의 가구 연장보증보험(EW보험) ‘한샘AS케어+(플러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샘AS케어+는 1년간의 무상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객이 안심하고 가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3년 더 보증기간

을 연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고객은 구매 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회만 결제하면 된다. 고장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제품가액 한도 내에서 수리 금액 전액을 보장하며,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한샘과 한화손보는 한샘AS케어+를 도입하면 가구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LS일렉트릭-GE버노바, HVDC 합작법인 설립

‘Grid X Technology’로 국내외 공략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 GE버노바(GE Vernova)와 전압형(VSC) 초고압직류송전(HVDC)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한 국내외 전력망 시장 공략에 나선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력망 기술 전시회 ‘CIGRE 2026’에서 GE버노바

와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작법인의 사명은 전력망의 신뢰성(Reliability)과 통합(Integration), 교환(eXchange)의 의미를 담은 ‘Grid X Technology’로 정했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 전압형 HVDC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생산·사업 역량을 결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HVDC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협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과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LS일렉트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업용 HVDC 프로젝트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기술에 창의적 감각을 더하다

AI 초융합대학

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서울캠퍼스 + 천안캠퍼스

2026. 9. 7(월) 10:00 ~ 9. 11(금) 18:00

“싸게 바꿔준다더니”… ‘최적요금제’, 통신사 재량에 달렸다

10월부터 요금제 추천 의무화
위약금 명분 고가 요금 유도에도
법적 강제력 없어 시정 권고만
통신사에게 새 마케팅 창구 우려

가게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적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요금제 정보 제공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추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진다.

26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인 ‘최적요금제’가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휴대폰 이용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합리적인 요금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통신 사업자의 합리적인 상품 추천을 통



서울의 한 대리점 모습.

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선택 약정’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위 요금제 편향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선택 약정은 프리미엄 요금제를 미끼로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면서 가입 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통신비를 매월 25% 할인 해주는 대신 최대 2년 동안 다른 요금제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통신3사는 최근 6개월 간 소비자가 이용한 음성·문자·데이터의 평균을 분석해 현재 요금제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추천하면 된다. 만약 현재 요금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변동 없이 고지할 수 있다.

문제는 통신사가 추천한 요금제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요금제 고지 기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적합성 판단에 대한 내용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지 기간 원칙은 이용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하고 매 6개월마다 한 달안에 고지해야 한다. 반면 통신사가 선정한 요금제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시정 권고에 그쳤다. 이는 시정 명령보다 강제성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최적요금제가 통신사들의 또 다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나온다. 선택 약정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이 더 높은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에게 조건이 유리할 경우 더 비싼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충돌하는 대목이다.

물론 통신사에 전가되는 비용 부담은 있다. 최적요금제 시행으로 이들이 부담할 직접 비용은 3년 간 437억원으로 추산된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52억원 수준이다. 통신사가 영업비, 인건비 등으로 투입하는 관공비는 매년 2조원에 달한다. 통신사 입장에서 타깃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마케팅의 길이 열린 셈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SK AX, SAP와 AI 기반 ERP 전환 이끈다

전략적 협력 맺고 AI 전환 시장 공략
ERP 기술과 AX 운영 역량 결합

SK AX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SAP와 비즈니스 협력을 맺고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 AX는 독일 SAP 본사에서 SAP 오토노머스 스위트 및 비즈니스 AI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SAP가 보유한 기업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SK AX의 산업별 AX 설계·운영 역량의 결합에 에이전트 AI로 최적화하는 것이다. ERP는 기업의 회계·인사·구매·재고·영업 등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SAP는 AI 에이전트의 자율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SAP 오토노머스 스위트’, 기업용 AI 제품군 ‘SAP 비즈니스 AI’, ‘AXgentic와이어 ERP 스위트’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 ‘EAR 옴스’, ‘EAR 스튜디오’ 등도 시스템 운영을 돕거나 설계 및 개발하며 기업의 AX 지원을 돕는다.



김완중 SK AX 사장(오른쪽)과 크리스티안 클라인 SAP CEO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발도르프에 위치한 SAP 본사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 AX

SK AX는 기업 현장의 ERP 운영을 지원하고 AI에 기반해 ERP 전환 돕는 ‘SK AX FDE·AIDE’를 통해 ERP 구축 방법론을 제공한다. 특히 AXgentic와이어 ERP 스위트는 ERP 전략 수립부터 운영 혁신까지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을 AI로 혁신하는 통합 서비스다. 이 중 AI 제품 ‘마이 파이낸스’는 재무 업무를 자동화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방형 플랫폼과 AI 에이전트 허브에 등록해 전 세계 기업 고객에게 공급한다. ERP 구축·전환 기간 단축과 운영 품질 향

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SK AX는 SAP가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제품을 업무 환경에 적용하고, SAP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EAC’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완중 SK AX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SK AX와 SK그룹이 먼저 선도적인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국내 및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선 기자

LGU+, 가입자망 자율운영 평가표 개발

TM 포럼서 평가 기준 제안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와이파이 등 유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입자망 장애관리 영역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산업 협의체 가입자망 장애관리 영역에서 자율 운영 네트워크 수준 평가표 개발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TM 포럼은 전 세계 통신사업자와 장비 제조사가 참여해 통신산업 표준과 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이번 평가표는 TM 포럼 공식 절차를 거쳐 승인됐으며 향후 가입자망 분야에서 자율운영 네트워크(AN) 레벨 인증 기준이 활용될 예정이다.

유선 가입자망은 인터넷, IPTV, 와이파이 등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영역이다. 그 동안 해당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식 기준이 전무했다. 때문에 사업자별 운영 수준을 비교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따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자율 운영 네트워크 수준 평가표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 기준 마련에 따라 글로벌 통신사들은 가입자망 자율화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자율 운영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장비 제조사도 통신사업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솔루션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향후 글로벌 통신업계가 가입자망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LG CNS, AI 데이터센터에 액체냉각 적용

네이버클라우드가 운영

LG CNS가 AI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액체 냉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LG CNS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경기 고양에 위치한 삼성 데이터센터에 ‘직접 칩 냉각(DTC)’ 기술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접 칩 냉각은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관을 GPU 칩에 부착해 열을 흡수하는 액체 냉각 방식이다. 기존 공랭식을 보완하는 기술로, 효율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보급한 엔비디아 초고성능 GPU 베라 루빈에 이번 액체 냉각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최근 입주한 네이버클라우드가 운영한다. 앞서 LG CNS는 이시스

자산운용으로부터 삼송 데이터센터 위탁 운영을 맡았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DTC 기술은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공랭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랙당 전력 밀도는 20~30kW 수준인데 반해 고성능 GPU 서버 랙이 요구하는 전력 밀도는 200kW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공기 대비 열전달 효율이 높은 액체로 발열을 관리해 전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양사는 내년까지 액체냉각 인프라 구축과 실증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총수전 용량 80MW인 삼송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급 AI 팩토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뤼튼테크놀로지스 1000억 시리즈C 유치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뫼튼테크놀로지스는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유치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국내 AI 서비스 스타트업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뫼튼테크놀로지스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2300억원이 됐다.

이번 라운드에는 코아라인벤처스와 유진자산운용이 신규로 참여했고, 기존 투자사인 굿위타캐피탈, 앤들러 글로벌, 우리벤처파트너스, 수이제네리스파트너스, 산업은행, 캡스토폴파트너스 등이 함께 했다.

지난 5월 북미에서 출시한 AI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 ‘OOC’가 월매출 100억원을 넘겼으며,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섰다고 밝혔다.

/김보민 수습기자

예산·경제 업무에 생성형 AI 적용

메타빌드는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데이터플랫폼 AI-ON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약 49억원 규모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0일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보유한 행정·정책 문서와 재정·경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편성과 거시경제 분석, 국회 대응 등 주요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기반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기획예산처 내부 데이터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사업의 주요 범위는 ▲행정·정책 문서의 중앙화·이중화 체계 구축 ▲기획예산처 전용 데이터플랫폼 구축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게 처리하는 지식베이스 구

축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데이터·AI 거버넌스와 보안·권한관리 체계 수립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회 질의서를 분석해 담당 부서 분류와 답변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빌스캔 국회업무 지원 서비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와 예산요구서를 연계해 예산 조화·분석과 유사 사업 탐지를 지원하는 ‘AI 예산 어시스턴트’, 자료 검색·분석과 문서 초안 작성을 돕는 ‘스마트 보고서 서비스’, 국내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수집·정제·분석·시각화하는 ‘매크로뷰’다.

메타빌드는 ‘AI 대국민 복지안내실증’, ‘복지행정 AI 안내도우미’, ‘복지행정 지역특화 AI 서비스’, ‘지방세 AI 상담서비스’, ‘집현전 AI 국가직식상담서비스’ 등 선행 사업의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새내기주 잇단 공모가 하회… IPO 시장 투자심리 위축

7월 이후 상장 첫날 수익률 -4.62% 청약 흥행에도 상장 직후 주가 약세 낮은 의무보유확약·고평가 부담 중복상장 규제·대형주 쏠림도 영향 대어급 IPO 상장에 반전 기대감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투명 교정기 제작 업체 그래피는 공모가(1만5000원)보다 24.9% 낮은 1만1260원에 첫날 거래를 마쳤다. 전일 상장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기업 니어스랩 주가 역시 첫날 공모가(4만1200원)보다 30.46% 하락한 2만8650원에 장을 마쳤다. 니어스랩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 530대 1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증거금도 2조5000억원 가량이 모였다. 딜리셔스(12일)는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26.6% 하락했고 기도산업(21일)은 34.6% 떨어졌다.

그나마 케이앤에스아이앤씨(13일)가 첫날 종가가 공모가보다 39.8% 상승하며 8월 상장한 '새내기주'의 체면을 살렸지만, 초라한 성적표다.

공모 청약 후 상장 당일 단기 매매로 소소한 차익을 남기는 '치킨값 벌이'는 최근 1~2년간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타로 가족이 한끼를



파네시로 생성한 '코스닥 새내기주 급락' 관련 이미지.

해결할 수 있는 치킨 값은 건진다'는 의미였는데, 7월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이 식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치킨값 벌이도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개미는 눈물만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5까지 신규 상장주 10개의 첫날 평균 수익률은 -4.62%로 떨어졌다. 레몬헬스케어·딜리셔스 등은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났고, 에이치엘지노믹스는 58.6% 급락했다.

전 분기만 해도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8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은 132.4%에 달했다.

3분기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모주 시장 투자 심리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후 전날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0.45%, 9.72% 내렸다.

특히 중복상장 관련 규제가 공개되자, 기업들이 한국거래소의 첫 심사 사례를 지켜보며 상장 시기를 조절하는 이른바 '눈치 보기' 현상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6일 중복상장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잡정안을 공개한 이후 같은달 31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중소형주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

도 자리잡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O 공모금액은 1조1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감소했고, 신규 상장기업 시가총액도 47.5% 줄었다. 이달 상장한 5개 종목의 예상 시가총액도 모두 3000억원을 밑돌았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8월 IPO 시장 부진의 배경으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반도체 등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을 지목했다. 최 연구원은 "(중복상장)가이드라인 발표가 몇 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낮은 의무보유확약 비중도 상장 직후 주가를 압박한 요인으로 꼽힌다. 기도산업의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0.003%, 니어스랩은 1.26%에 그쳤다. 높은 수요에 즉 경쟁률에도 실제 장기 보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분석이다.

공모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부각됐다. 니어스랩은 수요예측 경쟁률 743대 1, 일 반청약 경쟁률 530대 1을 기록했지만 상장 첫날 30.5% 하락했다. 지난해 매출 66억원, 영업손실 166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RTX와 록히드마틴 등 미국 대형 방산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한 점도 고평가 논란을 키웠다.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상장 첫날 장중 공모가 대비 123.6%까지 올랐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24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20.5% 낮아졌고,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하락률은 5.6%에 그쳤다.

◆대어 상장, 분위기 반전 시킬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중복상장 규제의 영향을 지켜보며 공모주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국지전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내포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한 국내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장 조건, 대기업 자회사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규제, 코스닥 시장 내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 추진을 계기로 향후 공모주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휴양콘도 운영업체 소노인 터내셔널은 지난 6월 말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밖에 시장에서는 뷰티 플랫폼 기업 구다이글로벌과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상장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원리금보장 쏠린 DB형 기업 부담 키운다

DB 적립금 91.9% 원리금보장 편중 수익률 3.5% 임금상승률에도 못 미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되면서 기업의 적립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기업이 부족분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만큼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기업·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기업의 다음 연도 부담금이 줄지만 수익률이 낮으면 기업이 부족한 적립금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228조9000억원으로 45.7%를 차지했다. 그러나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다. 보수적인 운용은 낮은 수익률로 이어졌다. 지난해 DB형 수익률은 3.5%로 확정급여형(IC) 8.5%, 개인형퇴직연금(IRP) 9.4%를 크게 밑돌았다. 최근 5년간 DB형 누적 수익률도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 18.9%보다 3%포인트 낮았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임금이 오르는 만큼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도 늘어나는 구조다. 노동부와 금융원은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최소한 해당 기업의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급여 지급 시기와 운용자산의 투자 기간을 맞추는 전략도 제시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지만 DB형이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내였다. 퇴직급여 부채의 듀레이션은 약 7.1년인 반면 운용자산은 2~3년에 그쳐 금리 하락 시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별 퇴직 시기와 임금 구조를 고려해 자산의 듀레이션을 조정하면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채권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적배당형 상품을 포함해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기업정보와 퇴직급여 부채, 위험 선호도를 분석한 뒤 투자 대상을 다변화했다. 그 결과 DB형 적립금 수익률이 5.9%에서 7.4%, 이후 25.5%로 개선되면서 추가 납입 부담도 줄었다.

/허정윤 기자

한화솔루션 유증에 주식 발행 5배 급증

유상증자 1.43조, 전월比 850.7% 증가

지난달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힘입어 기업의 주식 발행액이 전월의 약 5배로 늘었다. 반면 회사채 발행이 줄면서 주식과 회사채를 합친 전체 공모조달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6조 34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999억원(1.9%) 감소한 규모다.

주식 발행액은 7건, 1조492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769억원(37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상증자는 5건, 1조4308억원으로 850.7% 급증했다. 한화솔루션의 1조1713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주식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69.0% 감소했다. 지난해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진 데 따른 기저효과다.

기업공개(IPO)는 2건, 616억원으로 전

월보다 건수는 4건, 금액은 62.7% 줄었다. 두 건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이었다.

회사채 발행액은 315건, 24조8496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768억원(6.3%)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2조7770억원으로 9.3% 늘었지만 금융채는 21조8571억원으로 0.8% 줄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2155억원으로 89.0% 급감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차환 목적에 집중됐다. 차환용 발행액은 1조9120억원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전월 차환용 발행 비중은 31.5%였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이 86.3%에 달했고 A등급은 12.1%, BBB등급 이하는 1.6%였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군산 AI 데이터센터 개발

60MW 연내 착공, 300MW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SGC에너지 등과 군산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김재준 군산시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이우성 SGC에너지대표이사, 나태준 현대엔지니어링 건축영업사업본부장, 안기청 KT호남법인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군산에 60MW(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연내 착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데이터센

터 규모를 호남권 최대 수준인 300MW까지 확대해 전북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사업 전담 법인에 투자하고 PF 주선 등을 맡는다. 데이터센터는 SGC에너지가 보유한 부지에 모듈형으로 건립된다. 입주기업은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 다른 개발 사업과 비교해 안정성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데이터센터 등 뉴이코노미 인프라 투자로 PF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데이터센터 PF 누적 주선 규모는 약 2조9000억원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PF 시장의 27%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에탁결제원, 씨티은행과 외화증권 협력

시스템 통합·결제주기 단축 대응

한국에탁결제원은 전날 부산 본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은행(Citibank N.A.)과 외화증권 업무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의진 에탁결제원 글로벌본부장은 방한한 데이비드 브라운·톰 라이든 씨티은행 일본·북아시아·호주지역 금융기관 영업 부문 공동대표와 만나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양 기관은 ▲씨티은행 내부 업무 시스템 통합 ▲결제주기 단축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브라운 씨티은행 일본·북아시아·호주지역 금융기관 공동대표, 권의진 한국에탁결제원 글로벌본부장, 톰 라이든(Tom Lydon) 씨티은행 금융기관 영업 부문 공동대표.

/에탁결제원

에탁원은 "앞으로도 씨티은행과 안전하고 편리한 외화증권 투자지원 3및 글로벌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220GW 규모로 대폭 확대”

기후부·전기본, 재생에너지 계획 공개
지난해 보급실적의 6.6배 규모 목표
태양광 155GW, 풍력 61GW 확대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20GW(기가와트)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보급 실적(33.4GW)의 약 6.6배에 달하는 규모로, 태양광은 155GW, 풍력은 61GW까지 늘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전망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

/중부발전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태양광 155GW·풍력 61GW 목표… 단계적 인프라 확충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및 풍력(육

상·해상) 보급 실적은 총 33.4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이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를 거쳐 2040년까지 220GW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보급을 지난해

31GW에서 2040년 155GW까지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시장 잠재량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영농형 및 수상형 태양광 등 우수 입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0.4GW에 불과했던 해상풍력은 2030년 3GW, 2035년 25GW, 2040년 45GW로 단계적 확장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전용 설치선박(WTIV) 및 지원 항만 등 관련 인프라도 조기 확보할 예정이다.

육상풍력 역시 지난해 2GW에서 2040년 16GW까지 늘린다.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하고, 노후 설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

도 활성화한다.

◆규제 완화 및 제도 개편으로 시장 활성화 유도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력 계통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확충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울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에 맞춘 중장기 입찰 로드맵을 수립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별도 추산된 자가용 태양광(2040년 16GW 전망) 확대를 위해서도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및 공공기관 K-RE100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총력

기후부, 금한승 1차관 주재 점검회의
호남권 회의서 기초 조사·설계 등 논의
용인선 통합용수공급사업 현황 점검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 점검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공정에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용수 인프라 구축 시점을 산단 가동 일정과 맞추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한승 1차관 주재로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를, 27일에는 용인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점검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세정 및 제조 공정 특성상 대규모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원 확보부터 관로 및 수도시설 건설까지 막대한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의 인·허가 협조가 얹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추진 일정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26일 호남권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가뭄정보 심각단계에 진입한 운문댐(경북 청도) 방문해 댐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가뭄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부

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해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설계, 인·허가 속도전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7일 열리는 용인 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경기도, 용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업의 반도체 제조시설(팩) 가동 시점에 맞춰 용수 공급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절차 및 협조 사항

을 윈스톱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주요 반도체 거점의 용수 인프라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해 기업의 투자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1차관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유사 ‘전속거래·깜빡이 정산’ 막는다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지목되어온 ‘전속거래(전량구매)’와 ‘깜빡이 사후정산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간만을 달고도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섞어 팔 수 있게 된다. 또 기름을 살 때 정확한 공급 가격을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주유소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윤지로위

원회 중재로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4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가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공식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주유소라 하더라도 해당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만 구매하면, 나머지 40%는 다른 정유사나 알뜰주유소 공급 제품으로 채울 수 있는 ‘혼합계약’ 가능성이 명시됐다. 그간 정유사들은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전속계약을 관행으로 삼아왔으나, 앞으로는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에서 부당한 차별을 둘 수 없다.

수십 년간 이어진 ‘사후정산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먼저 공급받아 판매한



9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4주 연속 하락한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뒤, 한 달 후 정유사가 정한 월평균가로 정산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주유소는 자신이 기름을 얼마에 사 오는지도 모른 채 판매가를 설정하는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가격으로 즉시 정산을 확정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중소·중견 수출길에 3000억 지원

‘산업R&D혁신기업 우대금융’ 선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전용 무역금융이 지원된다. R&D 성과가 단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금융 마중물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R&D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 무역금융 상품인 ‘산업R&D 혁신기업 우대금융’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R&D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총 200억원을 공동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무역금융 한도 확대(2~2.5배) ▲보증비용 우대

(90%→100%) ▲보증료 20%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입증됐으나 수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은 한도는 높이고 금리 부담은 낮춰 해외 진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보는 정부의 5급 3특(국가균형발전 체계) 및 제조업 AI 전환(M.AX) 정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등에는 최대 2.5배의 특별 한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우대금융은 산업통상부, 금융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 협력해 만든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생금융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우리술 품평회’ 18개 수상작 선정

올해 최고의 술 ‘베리와인 1168CS’
수상작 실제 매출·판로확대 연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 등 총 18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술’에는 충북 영동산 포도로 만든 과실주인 ‘베리와인 1168CS’ (사진)가 뽑혔다.

대통령상을 받은 베리와인 1168CS는 영동에서 재배한 당도 14브릭스 이상의 캠퍼리 포도로 만든 알코올 도수 13도의 과실주다. 포도즙과 껍질을 저온에서 접촉시키는 저온침용과 두 차례 발효를 거쳐 원물의 신선한 풍미를 살렸다. 선명한 자주빛과 딸기·꽃 향, 신선한 산도와 탄닌의 균형이 특징이다. 과거 가정에서 빚어 마시던 과실주의 맛을 현대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대상에는 저도탁주 부문 술빚는 전가네의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 고도탁주 부문 우리첫술의 ‘우리첫술 청설’, 약·청주 부문 내을담의 ‘담 골드’가 선정됐다. 증류주 부문에서는 조은술세종의

‘이도42’, 기타주류 부문에서는 착한농부 예천지점의 ‘복도민취6도’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수상이 실제 매출과 판로 확대에 이어지도록 18개 수상작의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음 달에는 서울 북촌과 동대문 두터물 전통주 갤러리에서 시음·판매 행사를 열고 주요 유통사 상품기획자와 호텔·외식업체 구매 담당자 등을 초청한 시음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11월에는 우리술 대축제 우선 입점과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도 추진한다. 12월에는 수상업체의 해외 주류박람회 참가와 현지 유통현장 견학을 지원한다. 시상식은 11월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실한, 충실한, 확실한
우리의 결실, 송실대학교

실(實)은
송실이다

송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2027학년도 송실대학교 수시모집 안내

- 원서접수: 2026. 9. 8.(화) ~ 11.(금)
- 합격자 발표: 2026. 12. 18.(금)
- 합격자 등록: 2026. 12. 21.(월) ~ 23.(수)
- 입학상담: admission.ssu.ac.kr, 02-820-0050~3



맘스터치, 거제 수해 현장에 버거 지원

맘스터치가 재해 현장의 봉사자들과 수재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맘스터치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자 지난 25일 지역 가맹점과 함께 버거와 음료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광복절 연휴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시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덜기 위해 진행했다. 거제시 가맹점 7곳도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맘스터치



포스코스틸리온, 포항 노후주택 새단장

포스코스틸리온이 포항 지역 노후주택을 새단장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포항시, 세이브더칠드런과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꺼비하우스' 4호점을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두꺼비하우스는 노후주택을 전면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2024년 11월 1호점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4곳이 완공됐다. /포스코스틸리온



BBQ, 적십자 봉사자와 치킨캠프 개최

대한적십자사와 협력을 이어온 제너시스BBQ 그룹이 체험형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온기를 더하고 있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25일 경기도 이천시 치킨대학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치킨캠프'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캠프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봉사자 20명이 참여했다. /제너시스BBQ

정식품 '공공 PR 대상' 우수상

정식품이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행동을 친환경 실천으로 연결한 캠페인으로 공공 PR 분야에서 수상했다. 정식품은 '2026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 민간 기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신규보임 및 전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이지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김유경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송석섭

부음 ▲이정례(향년 86세)씨 별세, 오광헌(보람할렐루아탁구단 단장)씨 모친상 = 26일, 인천 새천년장례식장 VIP실,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후 효원가족공원. 070-4538-3538.

제네시스, 'GV90' 세계무대 데뷔 외신 호평 잇따라

코치도어·한국적 디자인에 찬사
온돌 착안 실내공간 차별화 평가
포브스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

“제네시스가 마침내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포브스·Forbes)

제네시스의 첫 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이 글로벌 시장 공개 직후 전세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디자인과 첨단 기술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GV90'과 'GV90 네오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유력 매체들은 특히 B필러 없이 앞뒤 도어가 마주 보며 열리는 완전독립식 '네오론아치 게이트'와 콘셉트카를 그대로 구현한 디자인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트렌드는 “혁신적인 듀얼 모션 힌지와 히든 롤케이



제네시스 GV90 네오론.

지를 더해 고급 세단의 우아함과 현대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평가했으며, 카스캡스는 “양산 과정에서 사라지기 쉬운 코치 도어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2열 승차 경험을 극대화했다”고 호평했다.

영국 오토 익스프레스와 카 매거진 역시 “한국 달항아리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과 윈 페이스 MLA 램프가 완벽한 일체감을 이룬다”고 전했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도 주목 받았다.

미국 잘롭닉은 “현존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GV90 네오론의 실내를 능가하는 인테리어를 떠올리기 어렵다”며 차량 내부를 ‘프라이빗 아트 갤러리’에 비유했다.

오토 익스프레스와 카앤드라이버는 한국 온돌에서 착안한 복사열 우드 플로어와 180도 회전형 스위블 시트를 언급하며 “월스스로이스 컬러린 등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독특한 럭셔리를 완성했다”고 평했다.

SKT,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지원 나선다

후원선수 8명 ‘팀 SKT 2026’ 출정
국민응원 태극기 친천선수촌에 전달

SK텔레콤이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스포츠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SK텔레콤은 친천선수촌에서 ‘팀 SKT 2026’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SK텔레콤 후원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정식에는 펜싱, 역도, 수영 등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총 8명이 참석했다. 오상욱·도경동·송세라·전하영(펜싱), 박혜정(역도), 황선우(수영), 나마디 조엘진(육상), 노현승(스포츠클라이밍) 등이다. 이들은 아시안게임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국민의 열띤 응원에 최선을 경기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날 SK텔레콤이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응원 문구로 빠곡히 채운 ‘국민응원 태극기’를 공개했다. 태극기는 권영상SK텔

레콤 커뮤니케이션지원실장이 ‘팀 SKT’와 ‘팀 코리아’ 선수단 전체의 필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김택수 친천선수촌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나고야로 향하는 ‘팀 SKT 팬 크리에이터’들도 출정식에 함께 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생생한 순간들을 응원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아시안 게임 훈련 과정에서 펜싱 AI 전력분석 시스템을 지원한다. 자체 개발한 ‘SKT-FAN’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컴퓨터 비전 기술로 경기 직후 득실점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 편집해주고, 상대 선수의 전술·공격 패턴 등 강약점을 상세하게 분석해준다.

이를 통해 전력분석원의 반복적인 영상 분석 업무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을 고도화하고, 실전에서도 빠르게 전략을 조정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msjo@

르노 필랑트, 프랑스 대사 의전차 선정

올해 3월 출시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정숙성·안전성 갖춘 하이브리드 E-테크

르노코리아는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필랑트 하이브리드 E-테크가 주한 프랑스 대사 공식차량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5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은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에 필랑트 스마트키를 직접 전달했다.

필랑트는 올해 3월 국내 출시된 플래그십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다. 세단과 SUV 장점을 결합한 디자인과 프리미엄 테크라운지 콘셉트의 넉넉한 실내, 첨단 편의 및 커넥티비티 사양을 모두 갖췄다. 전트림 기본 적용된 정숙한 주행 기술 및 안전 사양, 하이브리드 E*테크 파워트레인 등 외교 일정에 필요한 품격과 안정성을 충족시키는 요소라는 게 르노코리아 측 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왼쪽)와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이 지난 25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필랑트 전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명이다.

베르투 대사는 “필랑트는 프랑스 기술의 우아함과 기술적 탁월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라며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의 성과와 잠재력을 담고 있으며 특히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에 출시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 이종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영그룹

부영, 외국인 유학생 98명에 장학금

누적 장학생 46개국 2945명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약 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재단의 누적 장학생은 46개국 2945명, 장학금은 116억원으로 늘었다.

이 화장이 교육·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회장은 “낯선 환경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유학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장학생들이 고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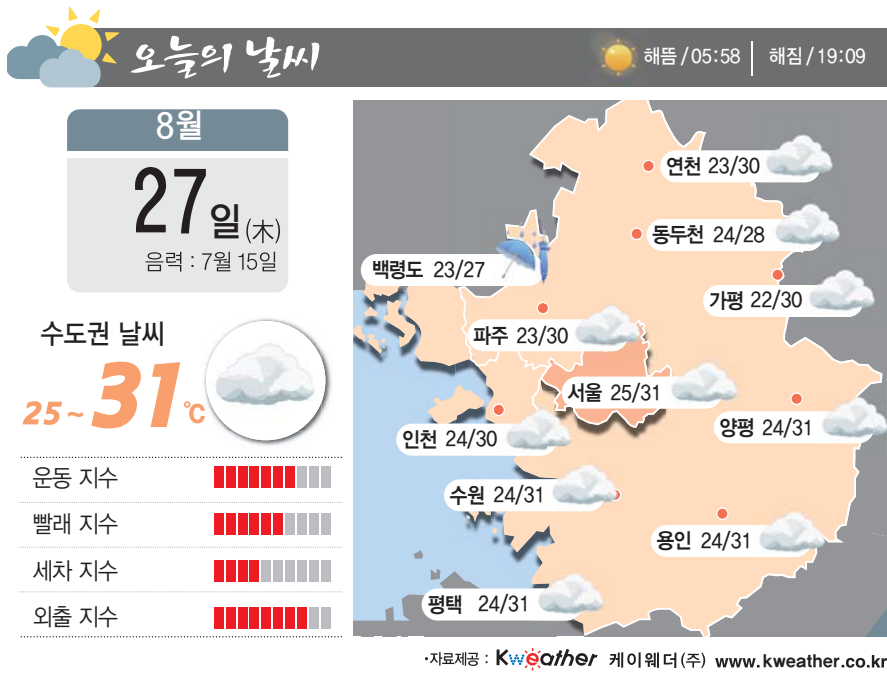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서경배과학재단, 신진 생명과학자 4명 선정

서경배과학재단이 한국 생명과학의 미래를 끌어갈 신진 연구자 발굴에 나섰다. 서경배과학재단은 ‘2026년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 신진 과학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4인의 연구 분야는 뇌과학, 대사질

환, 면역학 등 미래 바이오·의료 산업의 핵심 과제들과 맞닿아 있다.

카이스트(KAIST) 뇌인지과학과 권정대 교수는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회로 원리를 밝혀 조현병 및 환각 증상 치료의 길을 연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주주 환원 부재와 개미들의 눈물 ?



신 세 철

쉬운 경제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저비용 기업자금 조달에 주력하여 기업 경영 성과를 일반 주주에게 배분하기보다는 기업 확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기를 독려하였다.

기업이 괄목할 성과를 내고도 소액주주들에게 상응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투자자들은 경영성과에 상응하는 배당금 수령 같은 지극히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주식 매매차익(capital gain)만을 노리는 꼴이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매 회전율이 유달리 높고 주가 변동폭이 세계적으로 높은 원인이 다. 결과적으로 개미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까닭 아닐까?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가리지 않고...

기업이 지속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여야만 한다.

주주들이 미래를 밝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기업에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 사실상 대들보인 삼성전자가 26년 2분기 주주 배당금으로 주당 374원씩 배당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근로자 특별성과급으로 1인당 연평균 임금의 수년 차가 되는 6억 원을 지급했음을 생각할 때, 종업원은 극진히 모셔야 할 상전처럼 일반 (소액)주주는 하찮은 하수인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버리기 어려웠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보다 먼저 보너스를 왕창 지급한 하이닉스의 2분기 배당금도 3백여 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연간 배당금 추정액 1,496(374×4)원은 2분기 말 현재 주가 334,000원의 0.45%의 불과하고 회사채(3년, AA-) 금리 4.462%의 1/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기배당 기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로지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뼈아픈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적분석 투자는 성행하지만 중장기 본질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까닭이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하기보다 그저 주가 변동 방향을 매일매일 점쳐야만 투자 전선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슬픈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울고 웃는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 조바심을 내다 못해 피가 곤두설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가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증권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중장기로 보유하며 기대하는 소득을 올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며 시간이 지나면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지만,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투자 손실을 매꾸주는 독지가나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소액주주는 기업의 주인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격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아래서 미래의 금융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량주식 장기보유로 큰 수익을 실현하여 화제가 된 사례가 어쩌다 있다고 화제가 되지만, 증권시장에서 명성을 날리던 투자전문가들이 노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까닭 아닐까?

/'육망으로부터의 자유' 저자

원조반턴 한국,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다



기지 수첩

원 관 희
(산업부)

‘한국이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한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무기 원조에 의지했던 한국이 76년 만에 미국의 포병 전력 강화에 참여하게 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륜형 자주포 ‘K9MH’ 미국 진출은 그 자체로 자랑할 만한 성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 육군과 체결한 계약에는 시제품 6문 공급과 추가 12문에 대한 옵션이 담겼다. 앞으로 최대 4년간 시험·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국산 완성형 무기체계가 미 육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력을 보강하던 단계를 넘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직접 제시하게 된 것이다.

미국 진출이 대단한 이유는 시장 규모에만 있지 않다. 미국은 자국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촘촘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해외 기업이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 무기 성능은 물론 미군 체계와의 호환성,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 장기적인 정비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 미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향후 다른 국가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도 높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동안 K방산의 성장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가 주로 거론됐다. K9MH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기존 K9을 그대로 판매하는 대신 자동화 포탑을 차륜형 플랫폼에 적용해 미 육군이 요구하는 기동성과 운용 방식에 맞췄다. 완성된 제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수요국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셈이다.

미 육군이 차륜형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는

흐름을 포착해 개발에 착수하고 미국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준비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판단도 주효했다. 방위사업청도 사업 초기부터 계약 체결까지 미국 측과의 협의와 수출 절차를 지원했다. 축적된 기술력과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미국 방산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을 기회를 잡았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미군의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현지 생산과 정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시제품 공급을 후속 양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미국에 처음 자주포를 공급했다는 기록보다 미국이 한국 자주포를 계속 선택하도록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76년 전 미국의 지원은 한국이 국방력을 세우는 밑바탕이 됐다. 이제 한국은 자체 기술로 미국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기회를 얻었다. 양국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에서 한국 방산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wkt@metros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7일 (음 7월 1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밖으로 나아가세요. 60년생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72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랍니다. 84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49년생 연인, 부부의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입니다. 61년생 책임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73년생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85년생 애정운이 갑니다.



50년생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62년생 대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74년생 발전과 명예는 현재로서는 환상일 뿐입니다. 86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으니 여행을 떠나세요.



51년생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63년생 하루 일과가 무난하고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75년생 현금과 의외의 수입으로 오만해 질 수 있습니다. 87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기면 안됩니다.



52년생 꾀하는 일에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64년생 다음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76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났습니다. 88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53년생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65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77년생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갑니다. 89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마세요.



54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6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8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다른 일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55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절대 금물입니다. 79년생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91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56년생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일들을 격게 될 것입니다. 68년생 금전운은 무난합니다. 80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92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입조심하세요.



57년생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81년생 혼자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습니다. 93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58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70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82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94년생 바른 마음 기질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59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1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83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다른것은 다 필요없습니다. 95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법인카드의 명암

많은 직장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 관련 비용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 직장인들이 법인카드를 종종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주말에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이 정도는 관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필자가 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러한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자산이다. 업무에 따른 필요 때문에 개인에게 임시로 맡겨진 것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허락 없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횡령죄는 처벌도 무거워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거나 반복했을 때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횡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거래처를 접대하거나 출장 중에 사용한 비용도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춰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카드는 직장생활 하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유용함을 즐기기에 앞서 법적인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개인카드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는 생각지도 못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다. 법적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심코 불법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한다. 법인카드처럼 법적 규정이 명확한 사안에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 정도는 관찮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법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법인카드의 편리함에 앞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퍼즐과 재미있는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HUFs

Where Global Insights Meet
AI Innovation

융합일본지역학부
서인호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김예희

AI를 활용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한국외대의 트리플 시너지



송도캠퍼스 신설학부 모집

-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
-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노사관계, 생각 달라도 ‘연대’해야... 소통만이 갈등 풀어”

CEO 와칭

박 종 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노동정책이 현장과 국민 삶 속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조율해 온 소통 전문가가 있다. 중앙부처 내 이례적으로, 국장과 1급 실장 두 직급에 걸쳐 두 차례 대변인(고용노동부)을 지냈다. 노사발전재단의 박종필 사무총장이다.

박 사무총장은 1994년 행시 38회로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노동부에서 청년고용정책관과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여기에서 대변인직(2020년, 2023~2025년) 역임 이력은 노동행정 경험에 소통 역량을 가미하는 무기가 됐다. 이제 30년 관록을 바탕으로, 복잡다단한 일터의 갈등을 풀어 나갈 ‘노사 상생의 지휘자’로 현장에서 있다.

◆바른 소통 위한 ‘생각정리’

사실 그의 소통 노하우는 대변인실뿐 아니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통해 두각을 드러냈다. 장·차관 앞에서 부처 내 각 부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보고서 등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또 뛰어난 콘텐츠를 갖고도 표현상의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사내 강의가 입소문을 탔다. 박 사무총장이 펴낸 책 ‘고수의 보고서’는 스테디셀러다. 조직 내 보고서 작성 및 보고의 기본 원리를 4단계(구상-서술-편집-설명)로 체계화했다. 또 다른 저서 ‘고수의 역량평가 대처법’에서 그는 “역량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파편화된 생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덩어리로 묶어 새로운 의미의 스토리로 엮어내는 ‘생각 정리’를 강조한다.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반인과도 교감하고 있다. 보고서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첨삭 피드백을 제공한다. 2014년 시작한 카페 활동은 지금도 한창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명확하게 뜻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론이다.

◆현장·실행력·소통 ‘3대 핵심’

이 같은 소통 철학은 현재의 노사발전재단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8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현장 중심·실행력 제고·소통’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을 재단이 아니라 현장의 시선으로 보자”고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관 내부적으로 혁

박종필 사무총장 프로필

고려대 문과대 사학과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및
영국 버밍엄대 사회정책학 석사
영남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대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제8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2019년
베스트강사 및 명예의전당

저서
고수의 보고서
고수의 역량평가 대처법

조직 내 보고서 작성 원리 체계화 파편화된 생각 스토리로 엮어내야

현장·실행력·소통으로 재단 이끌어 모든 사업, 현장 시선으로 바라봐 노사갈등 해소 위해 사전 예방 절실 서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기본’ 내 생각 바꾸는 ‘자기성찰’ 필요

신방안(기관운영, 주요사업, 국민소통)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특히 문제 해결과 소통에 있어서는 “불편해도 문제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접근을 주문한다. 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재단의 각종 사업에 실질적인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일터는 노사 갈등, 장시간 노동, 급속한 고령화, 급변하는 글로벌 노동 기준 등 수많은 변수가 얹힌 고차방정식과 같다. 복잡한 실타래를 풀 해법 역시 현장에서 답을 찾고(현장 중심), 구체적인 제도로 뒷받침하며(실행력),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소통) 데 있다고 말한다. 재단이 추진 중인 4대 핵심 사업에서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일터의 사법적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갈등이 터진 뒤

법대로 해결하려 하면 막대한 비용과 상처만 남기 십상이다. 그는,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노사관계의 기본은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파트너십이며, 이를 위해선 상대를 이해하고 불편해도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파트너십 사업 재개

재단은 2년간 중단됐던 파트너십 사업의 공백을 깨고 올해 ‘상생파트너십 종합 지원사업’의 문을 열었다. 애칭도 ‘돌파’로 지었다. 돌아온 파트너십의 줄임말이자, 원·하청 교섭이나 산업전환기 등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일터의 난제를 노사가 함께 돌파하지는 의미다. 새 파트너십 사업은 기존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다. 과거 개별 사업장 위주였던 지원대상을 복수 사업장, 원·하청, 지역·업종별 노사 단체 등 기업 담당 밖으로 크게 넓혔다. 또 단순한 프로그램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전문가의 코칭과 교육을 결합한 종합 지원으로 범위를 재편했다. 재단은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서 밀착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사에 전담 조직인 노사상생센터도 신설했다.

◆일하는 방식 바꾸는 ‘실노동시간 단축’

그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

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핵심은 법정 시간이 아니라 ‘실노동시간 단축’에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순히 시간만 줄이면 생산량은 감소하게 마련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있어야 노동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을 올리는 마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채용부터 노동시간, 임금체계, 조직문화, 평가보상 등 기업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사업이다. 올해는 주 4.5일제 특화컨설팅을 도입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설계해주고 있다. 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통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다.

‘상생파트너십 종합 지원’ 재개 지원 대상 넓히고 지원 범위 재편

일하는 방식 혁신해 노동시간 단축 중장년 구직자에 취업알선 패키지 재직자엔 3단계 커리어플래닝 제공

재단은 중장년 지원사업의 혁신도 추진 중이다. 과거의 단순한 일자리 매칭에 안주하지 않고, 중장년의 일과 삶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훈련·일 경험 지원·취업알선’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중장년 재직자에게는 기초·심화·코칭의 3단계로 고도화된 커리어플래닝 서비스와 1:1 전담 코칭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AI 활용 직무 교육’까지 신설해 재취업 경쟁력 제고를 돕고 있다. 전국 12개 중장년내일센터는 업종 중심의 광역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로 대구·대전·광주 센터는 보건업 중심, 부산·목포·인천 센터는 해운업 중심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리스크 예방 및 글로벌 노동 협력에도 역점을 둔다. ‘해외 노동리스크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29개국의 인사노무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고 AI를 통한 정보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착지원 역할도 강화했다. 연내 ‘24시간 AI 다국어 상담망’의 설치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ODA(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등에 K-노동정책을 소개하고 선진화 방안을 공유했다.

“노사관계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박 사무총장이 취임사에서 힘줘 말한 대목이다. 그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라는 통즉불통(通即不痛) 불통즉통(不通即痛)의 원리를 언급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만이 갈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①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왼쪽 7번째)이 지난 7월29일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생수 나눔식’ 행사에 참석해 있다. ②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왼쪽)이 지난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에서 황순배 네이버 최고인사책임자와 ‘IT 산업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및 중장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수시 86%, 학생부 중심 선발 지역전형 확대 속 ‘소신·안정’ 배분

2027학년도 일반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전체 모집인원의 80.3%를 수시로 선발하는 가운데, 수시 인원의 85% 이상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 나란히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 수시 27만7583명…전체의 8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95개 대학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대학별로 이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받는다. 수시 전형은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12월 18일까지 발표한다.

2027학년도 일반대 전체 모집인원 34만5717명 가운데 수시모집 인원은 27만7583명으로 80.3%를 차지한다. 전년보다 1735명 늘어난 규모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5만640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8만1931명, 실기·실적전형 2만1954명, 논술전형 1만2711명, 기타전형 4584명 순이다.

정원 내에서는 일반전형 13만9200명과 대학별 독자적 기준, 사회통합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기자전형 등을 포함한 특별전형 10만9519명 등 총 24만8719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에서는 계약학과, 사회통합전형,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통해 2만8864명을 모집한다.

다만 시행계획상 모집인원과 실제 대학별 모집인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수치는 의과대학 정원 505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508명으로 확정하면서 대학별 모집인원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이다. 수험생은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에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 학생부전형 85.9%…지역균형·지역인재 확대

올해 수시모집의 중심은 학생부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전년보다 908명 증가한 15만6403명, 학생부종합전형은 558명 늘어난 8만1931명을 선발한다. 두 전형을 합하면 23만8334명으로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약 85.9%

에 해당한다. 수시모집 인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을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셈이다.

학생부전형 확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341명, 학생부종합전형은 392명 증가했다. 논술전형도 92명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567명, 학생부종합전형이 166명 증가했다.

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모집인원은 줄었다. 수도권 대학에서 전년보다 234명, 비수도권 대학에서 473명 감소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도 확대됐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 모집인원은 1만3872명으로 전년보다 786명 늘었다. 대학별로는 한양대가 294명 늘었고 국민대 190명 등이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만7730명으로 전년보다 952명 증가했다. 충남대가 221명 늘었고 충북대 139명, 경북대 112명, 전북대 106명, 제주대 101명 등이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

반면 사회통합전형 가운데 기회균형 모집인원은 감소했다. 2027학년도 기회균형 모집인원은 3만7324명으로 전년보다 876명 줄었다. 지역균형은 786명, 지역인재는 952명 각각 증가하면서 지역 중심 전형의 모집 규모는 확대됐다.

◆ 대학별 마감시간 달라…공동원서·전형료 결제 준비

수시모집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대학별 원서접수 기간과 전형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지만 대학별 접수 시작일과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또 시행계획 발표 이후 모집인원이 조정된 대학이 있는 만큼 지원 전 각 대학이 확정된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나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까지 가능한 한 미리 마치는 것이 좋다. 접수 완료 뒤에는 대학별 제출서류와 마감시간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유투이미지

학생부전형 서류평가 세분화… 출결·학교폭력 반영 강화



경희대학교

수시 55% 선발… 학종 서류 평가항목 6개
학교폭력 1~3호 1% 감점, 4~9호 감점 확대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정원 내·외) 5433명 중 3006명(55.3%)을 선발한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를 세분화하고 논술우수자전형 사회계열 논술 고사의 출제 방식을 개편한다. 출결과 학교폭력 조치 상황 반영도 강화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학업역량에서 학업성취도 25%, 학업태도 및 탐구력 15%, 진로역량에서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 25%,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15%를 반영한다. 공동체육량은 협업과 소통능력·리더십 10%, 나눔과 배려·성실성과 규칙준수 10%를 반영한다. 자율·자유전공학부는 진



로역량 대신 자기주도역량을 반영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업성취도 30%, 학업태도 및 탐구력 30%,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 40%를 반영한다. 자율·자유전공학부는 학업성

취도와 학업태도 및 탐구력을 각각 50% 반영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는 입학사정관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면접평가는 평가위원 2인과 지원자 1인이 참여하는 2대1 방식으로 지원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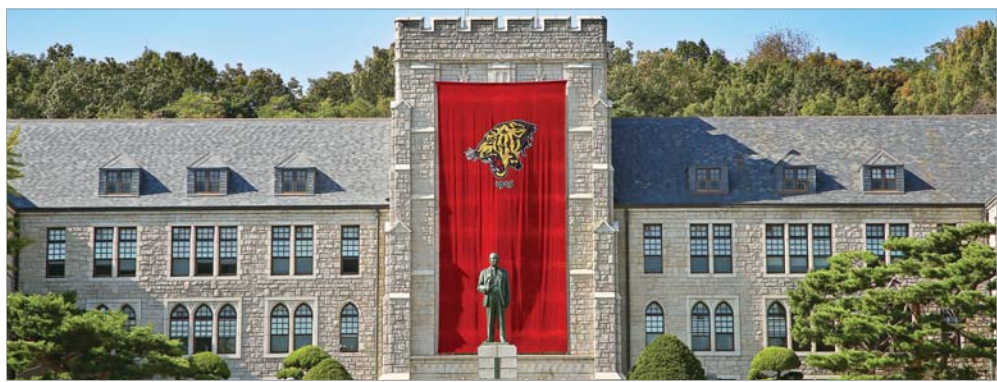
인당 약 10분간 진행한다. 별도의 제시문이나 공통 출제문항 없이 제출서류 기반으로 진행하며 인성과 전공적합성을 각각 50% 평가한다.

출결과 학교폭력 조치상황 반영도 강화된다. 출결을 정량반영하는 경우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중 2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환산한다. 학교폭력 조치상황은 2026학년도에는 감점이 없었던 1~3호도 2027학년도부터 전형 총점에서 1% 감점한다. 4~9호도 전년 대비 감점 비율을 확대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인문·체육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학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인문·체육계와 사회계는 통합형 논술, 자연계는 수리논술, 의·약학계는 수리논술 60%와 과학 논술 40%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계 논술은 기존 3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이고 수리논술 문항은 폐지한다. 대신 도표와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제시문 기반의 통합형 논술로 출제할 예정이다.



최진무 입학처장



기회균형·재외국민, 계열 선발 전환

고려대학교

수시 2731명 선발, 학폭 조치사항 적용
학생부종합 1675명·교과 650명 모집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년 대비 28명 늘어난 2731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 종합전형 1675명, 학생부교과전형 650명, 논술전형 351명, 실기·실적 위주 전형 55명이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 기회균형전형과 재외국민전형(2%)의 모집 방식이 기존 학과 단위에서 계열 단위 선발로 변경된다. 이를 제외한 주요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등은 2026학년도 체제를 유지하여, 수험생과 진학지도 교사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 기회균형전형과 재외국민전형(2%)의 모집 방식이 기존 학과 단위에서 계열 단위 선발로 변경된다.

수시모집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 성적 90%와 서류평가 10%를 합산하고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평가하여 지원자의 학업역량, 자기계발의지, 공동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고려대의 모든 수시 면접 평가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업우수전형은 서류평가 100%에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계열적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성적 40%를 합산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성적과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고려대는 대입 공정성 제고와 인성 평가를 위해 입학전형 전반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서류평가가 포함된 전형은 정성평가가 방식으로, 논술전형과 정시 수능위주전형은 정량 감점 방식으로 적용된다.



정한 입학처장

논술우수자전형 늘리고 약학과 도입



삼육대학교

수시 1029명 선발, 전년보다 204명 증가
학교장추천전형에 '내신 5등급제' 적용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중)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1029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선발인원 825명 대비 24.73%(204명 ↑) 대폭 증가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논술우수자전형'의 확대다. 신학과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전 학과에서 전년(154명) 대비 79.87%(123명 ↑) 증가한 277명을 선발한다. 약학과도 올해 처음으로 논술전형을 도입해 5명을 모집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직 논술고사 성적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역시 일반학과 기준 국어·영어·수학·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다. 단, 약학과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논술고사는 '약술형 논술' 형식으로 출제된다.

일반학과의 경우 국어와 수학 총 13문항을 80분간 푼다.

세움인재전형(종합전형)은 231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한다.

2단계 면접은 제시문 없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 질문하는 방식이다. 시간은 8분 이내다.



세움인재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약학과만 있다.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다.

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은 131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한다.

학교장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개편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전면 도입되는 '내신 5등급제'를 1년 앞당겨 적용한다.

단, 약학과는 기존 9등급제를 유지한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좌우되는 최상위권 특성상 변별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약학과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26명을 선발한다. 지난해(16명)보다 수시 인원이 10명이나 늘었다.

모든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학여플라이에서 실시한다.



이규일 입학처장

자유전공 신입생 292명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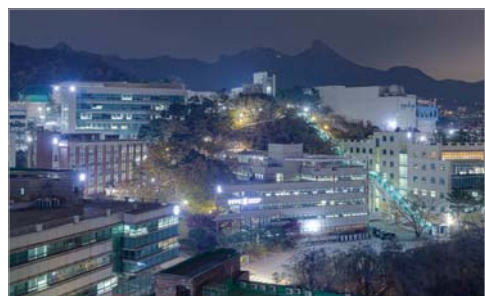
수시 1958명 선발, 서울 947명·천안 1011명
교과추천전형 학생부교과 100% 반영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정원 내·외를 포함해 총 1958명을 선발한다. 캠퍼스별 모집인원은 서울캠퍼스 947명, 천안캠퍼스 1011명이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에서 자유전공은 총 292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67명, 이공계열 45명, 예체능계열 12명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교과추천전형)와 논술(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천안캠퍼스는 인문사회계열 17명, 디자인/예술계열 22명, 공학계열 77명을 선발하며 스포츠융합자유전공학부에서도 52명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정원 내·외를 포함해 94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교과추천전형) 349명,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226명, 논술(논술전형) 98명, 실기/실적(실기전형) 138명이다.

학생부교과(교과추천전형)의 지원자격은 2024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국가안보학과 제외)이다.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지원 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인문 및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 중 애니메이션전공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예체능계열은 올해부터 모집단위에 스포츠건강관리전공과 조형예술전공이 추가됐다. 이로써 기존의 애니메이션전공을 포함해 총 3개 전공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캠퍼스 논술(논술전형)은 학생부교과 10%와 논술고사 90%를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애니메이션전공 제외)과 융합경영학과, 국가안보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약술형 논술을 실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천안캠퍼스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정원 내에서는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409명,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 228명, 실기/실적(실기전형, 특기자[체육]전형) 218명을 모집한다. 신입생 총 1011명을 선발한다.



유하연 입학처장

수능최저 완화·논술 90%로 상향



수시 1740명 선발, 지능전자공학부 신설
교과·논술 수능최저 '2개 합 6등급 이내'

송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3160명)의 약 55%인 1740명(정원의 포함)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송실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의 주요 특징은 ▲학생부종합(SSU미래인재전형) 이원화(서류형 신설)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논술(논술우수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지정과목 폐지, 전 계열 2개 합 6등급) ▲논술(논술우수자전형) 반영비율 변경(논술 80%→90%) ▲예체능우수인재전형(연기, 연출) 반영비율 변경 등이다.

송실대학교는 올해 기존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전공)과 전자정보공학부(IT융합전공) 두 모집단위를 통합해,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지능전자공학부'를 신설하고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1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SSU미래인재전형(면접형)은 올해 총 55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는 서류종합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3.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평가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신설된 SSU미래인재전형(서류형)은 총 16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종합평가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형과 마



찬가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과우수자전형은 총 46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별 추천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며,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은 80%, 진로선택 과목은 20%의 비율로 평가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의 모집인원은 총 248명이며, 전형 방법은 논술 비중이 기존 80%에서 90%로 확대되어 논술 90%와 학생부 교과 10%를 적용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교과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에만 있으며 수능 응시과목 제한 없이 전 계열 2개 합 6등급 이내로 맞추면 된다.

송실대는 3년 연속으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송실대는 수시모집 원서를 9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



장성연 입학처장



제네시스 ‘GV90’
세계무대 데뷔
외신 호평
L1



Life

박종필 사무총장
“노사관계
소통만이 해답”
L4



지역의사제 6명 뽑아... 논술비율 확대



2662명 선발... 학생부교과 438명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전 분야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982명 중 2662명(66.9%)을 선발한다.

2027학년도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전형은 면접형(939명)과 서류형(261명)으로 운영된다.

면접형은 서류종합평가와 면접평가를 반영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되며, 서류형은 서류종합평가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하대는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학생부종합(지역의사선발) 전형을 신설하면서 총 6명을 선발한다. 인하미래인재(면접형)과 동일한 전형 방법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운영된다.

학생부교과(지역균형)는 438명을 선발하며, 소속(졸업) 고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

교과 100%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계열별로 차등 적용하며, 의예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4~9호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80%)과 학생부교과(20%)를 반영하며,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술 반영비율이 70%에서 80%로 상승하며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인하대는 2024년부터 교육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전국 유일 전 분야에 선정됐다.

인하대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7일 오전 9시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다.



신동훈 입학처장

학종 ‘성장형인재’, 논술 ‘창의형’ 신설



2862명 수시 선발... 학생부종합 1478명
합격자 상위 10% ‘중앙우수인재’ 장학금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57.5%에 해당하는 2862명(정원 내 2517명, 정원 외 345명, 재외국민전형 제외)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 1478명,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508명, 논술전형 489명, 실기/실적위주전형 387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 ‘탐구형인재(512명)’와 ‘융합형인재(378명)’에 더해 ‘성장형인재(108명)’를 신설했다. 성장형인재는 1단계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며, 탐구형인재와 달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캠퍼스 인문·자연계열 및 간호학과는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약학과와 의학부는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다.

논술전형은 기존 ‘논술(일반형)’ 403명과 올해 신설된 ‘논술(창의형)’ 86명으로 이원화한다. 두 전형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논술(창의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7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첨단전략 분야 학과 모집인원도 확대한다. 지능형반도체공학과는 전년 대비 10명 늘어난



30명, AI학과 56명, 소프트웨어학부 160명을 선발한다. 산업보안학과는 최근 2년간 35명 늘어난 69명을 수시에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은 학생부 100%(교과 90%+총결 10%)로 508명을 선발한다. 인문·사회·경영경제·자연과학·공과대학 및 다빈치캠퍼스 생명공학대학에서는 총 239명을 ‘전공개방모집’으로 선발한다. 실기/실적위주전형은 실기형 313명, 특기형 74명 등 총 387명을 선발한다.

장학제도는 ▲중앙최우수인재 ▲중앙우수인재 ▲과학인재 ▲이공인재 등으로 운영한다. 수시 주요 전형 모집단위별 최조합격자 중 상위 10% 이내 입학생에게는 ‘중앙우수인재’ 장학으로 4년 등록금 전액과 학업지원비를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 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된다.



김정웅 입학처장

송도캠퍼스 개교 ‘글로벌바이오’ 신설



학생부종합 서류형 585명 모집
논술 100% 선발... 수능최저 완화

한국의국어대학교(총장 강기훈)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2102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교장추천전형 370명,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478명,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34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585명, 기회균형전형 183명, 논술전형 452명이다. 모든 전형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기회균형전형은 별도의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동일한 전형으로 2개 이상의 모집 단위에는 지원할 수 없다.

올해는 송도캠퍼스 개교에 따라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가 신설돼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을 통해 총 15명을 선발한다. 또한 대학·계열별 모집단위로 AI융합대학(서울)[통합모집]과 AI융합대학(글로벌)[통합모집]이 신설돼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과 논술전형에서 총 3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학교장 추천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한국사는 기준에서 제외되며, 서울캠퍼스는 국·수·영·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로 변동이 없으나 글로벌캠퍼스는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로 변경



이 됐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형, 서류형, SW인재, 기회균형으로 구분된다. 면접형은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서류 50%와 면접 50%를 합산해 선발한다. 반면 서류형, SW인재, 기회균형은 서류평가 100%로 합격자를 뽑는다. 평가 요소의 경우 면접형·SW인재는 진로역량(50%) 비중이 높고, 서류형·기회균형은 학업역량(50%) 비중이 높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반영 없이 논술고사 성적 100%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교장 추천전형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된 경우 호수에 따라 감점 처리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8일(화)부터 11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서류는 14일(월)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묵 입학처장

전체 수능최저 미적용... AIT대학 운영



수시모집 2553명 중 학생부교과 1306명
자유전공 확대... 뮤직프로덕션과 등 신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202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에서 2553명(정원내)을 모집한다. 수시전형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실적전형으로 나뉘며 모든 전형과 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학생부교과(학생부전형)’으로 1306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형별 선발 인원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평가한다. 성적 반영 방식은 석차등급 상위 12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상위 3과목, 총 15개 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이며,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된다. 또한 ‘학생부교과(면접전형)’은 간호학과 외 20개 학과에서 운영하며, 총 261명을 모집한다. 이 전형은 교과성적 60% + 면접 40%로 반영되며, 면접 질문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상 문항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202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한다. 대표 전형인 ‘학생부종합(호서인재전형)’은 346명을 선발한다. 학업적 역량 60%와 사회적 역량 40%를 평가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한다.

실기전형은 265명을 선발하고 실기고사 반



영 비율이 높다. 디자인 및 체육 계열은 실기 80% + 학생부교과성적 20%, 연기학과, 뮤직프로덕션학과는 실기 90% + 학생부교과성적 10%를 반영해 선발한다.

호서대는 2027학년도부터 AIT스쿨을 단과대학으로 확대하여 AIT대학을 신설한다. AIT대학은 ▲컴퓨터공학과 ▲지능로봇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인공지능학과 6개 학과를 기반으로 하며, 추가로 AIT대학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해 학생이 학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학과를 알아볼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를 갖췄다.

또한, 예체능계열의 뮤직프로덕션학과와 스포츠과학과를 신설하며 K-콘텐츠 산업과 웰니스 트렌드를 선도할 실무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자유전공학부의 모집인원이 70명으로 확대된다.



최인호 입학처장

삶 속으로 AI가 성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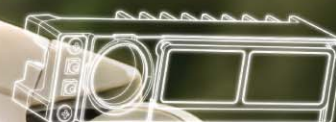
디지털에 머물던 AI를, 삶 속에서 움직이는 AI로.
LG가 사람을 위한 피지컬 AI 시대를 열어갑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지능



감정을 전하는
표정 디스플레이



보고 느끼는
감각 센서



피지컬 AI의 심장
배터리



자유로운 동작을
구현하는 액추에이터

섬세함을 구현하는
손 센서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